

II 손죽도





II. 손죽도



1. 사회·지리적 배경과 환경

가. 사회·지리적 배경

1) 주요 항과의 거리

손죽항은 손죽도의 유일한 항으로 여수여객선터미널에서 직선거리로 60.4km 떨어져 있고, 고흥의 나로도항까지는 20.9km 떨어져 있다. 인근의 초도항까지는 12.1km, 의성항까지는 12.6km 떨어져 있으며, 섬사랑호가 운항하고 있는 소거문항은 2.7km, 평도항 9.4km, 광도항은 15.9km 떨어져 있다.



손죽항



여객선대합실(2008)

2) 인구현황

2023년 7월 1일 기준, 손죽도의 인구 현황을 살펴보면 주민등록상 131세대 200명의 주민이 살고 있다. 삼산면에서는 거문도와 초도에 이어 3번째로 인구가 많은 섬이다.

인구 현황 (명)				
구분	세대수	인구수	남	여
손죽도	131	200	108	92



손죽마을 전경



손죽마을 전경(2008)



손죽도 전경

3) 토지현황

손죽도의 총면적은 2.92km²이고,¹⁾ 해안선 길이는 11.6km이다. 1999년 기준 토지이용 현황은 전답 0.56km², 임야 2.18km², 기타 0.27km²이다.

구분	면적	토지 현황 (km ²)		
		전답	임야	대지 및 기타
손죽도	2.92	0.56	2.18	0.27

4) 공공기관

(1) 손죽중계민원처리소

1965년 4월 19일, 출장소 설치 조례가 제정되고, 손죽도 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손죽출장소를 설치하였다. 그러나 출장소로 사용할 건물이 없어 손죽리사무소의 건물에서 업무를 보았다. 1985년 4월 15일 현재의 위치(삼산면 손죽리 산 1191, 우데미길 11)에 출장소 건물을 준공하였다. 2007년 5월 31일 조직개편으로 손죽중계민원처리소로 개칭되었다.

1) About전남의섬(<https://islands.jeonnam.go.kr/>)에는 2.66km²로 기록되어 있다.

- 1965. 04. 19. 여천군 손죽출장소 설치
- 1985. 04. 15. 사무실 신축(삼산면 손죽리 산 1191번지)
- 1998. 04. 01. 3여통합으로 여수시 손죽출장소로 개칭
- 2007. 05. 31. 손죽중계민원처리소로 개칭



손죽중계민원처리소



손죽출장소(2008)

(2) 손죽도 치안센터

일제강점기에는 거문도 주재소에서 경찰 1명이 손죽도에 파견되어 있었다. 해방 후 경찰이 상주하지 않다가 1976년 7월 15일 여수경찰서 손죽도 경찰연락소가 설치되어 전투경찰 2명이 상주하여 치안과 행정 연락 업무를 담당하였다. 이후 삼산면파출소 손죽도 초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손죽도 치안센터로 다시 변경하였다. 현재 경찰 1명이 상주하면서 근무하고 있다.



손죽도 치안센터



손죽도 초소 (2008)

(3) 손죽도우편취급국

1981년 11월 20일, 여수우체국 손죽분국(삼산면 손죽리 산 1179번지)이 개국하였다. 개국 당시 우편과 금융, 전보, 공중전화 등의 업무를 취급하였다. 2001년 8월 1일, 손죽도우체국이 폐국되고, 손죽도우편취급소로 격하되었는데 우편취급소는 우편 업무만 담당하다보니 당시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다. 이후 2008년 우정사업본부가 전국 우편취급소의 명칭을 일괄적으로 우편취급국으로 바꾸면서 손죽도우편취급국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손죽도우편취급국



우편취급국(2008)

(4) 손죽리사무소

손죽리 산 714번지에서 업무를 보았다가 1929년에 손죽리 산 710-1번지로 옮겼다. 1966년 아랫사장나무 밑 손죽리 산 1182-1번지로 신축이전하였고, 1997년 5월에 현재의 자리(손죽리 산 1215번지)로 신축이전하였다.



손죽리사무소(2008)

5) 교육기관

거문초등학교 손죽분교²⁾

일제강점기였던 1923년 3월 삼산면 손죽리 산 1468번지에 사립 죽림학원³⁾을 설립했다. 1932년 사립 손죽보통학교가 설립 인가되었고, 1938년 4월 사립 손죽심상소학교로 개칭하였다. 해방 후인 1946년 10월 15일 공립 손죽국민학교로 인가하였고, 1953년 4월 13일 소거문분교장이 문을 열었다. 이어서 1960년에는 평도분교장이 설립되었고, 4년 뒤인 1964년 3월

2) 손죽초등학교 연혁은 『손죽향토지』(1999)와 『초도향토지』(2020)가 약간 다르게 기술되어 있는데 손죽향토지의 연혁을 따른다.

3) 디지털여수문화대전, 『삼산면지』 등에는 1923년 손죽보통학교가 4년제로 인가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으나 당시 신문 기사 등을 참고하여 『손죽향토지』를 따른다.

광도분교장이 설립됨으로써 손죽열도 내 유인도에는 모두 학교가 설립된다.

1965년 즈음에 목조건물인 학교가 낡아 증축하는 과정에서 학생이 있는 모든 가구가 동원되어 부역을 하였다. 손죽도 서북쪽 뚝바에 있는 바위에 구멍을 뚫어 잘라낸 뒤에 일정한 크기의 석재로 다듬어 지게에 지고 학교까지 가지고 와 벽돌을 쌓아 학교를 증축하였다.

그러나 도서 지역 인구감소에 따라 학생수 역시 감소하기 시작하면서 1985년 3월 초도국민학교 손죽분교장으로 격하되었다. 이어서 1991년에는 평도분교장과 광도분교장이 폐교하였고, 1999년에는 소거문분교장이 폐교되었다. 2015년 3월 거문초등학교 손죽분교장으로 소속이 변경되었고, 2022년 2월 28일 폐교됨에 따라 죽림학원 설립 이후 99년 만에 폐교하였다.

- 1923. 03. 30. 사립 죽림학원 설립(4년제)
- 1932. 03. 30. 사립 손죽보통학교 인가(4년제)
- 1936. 사립 손죽심상소학교 허가(6년제)
- 1946. 10. 15. 공립 손죽국민학교 인가
- 1953. 04. 13. 소거문분교장 설립
- 1960. 06. 15. 평도분교장 설립
- 1964. 03. 01. 광도분교장 설립
- 1985. 03. 01. 초도국민학교 손죽분교장으로 편입
- 1991. 02. 28. 평도, 광도분교장 폐교
- 1999. 03. 01. 소거문분교장 폐교
- 2015. 03. 01. 거문초등학교 손죽분교장으로 편입
- 2022. 02. 28. 폐교

- 교훈 : 자주, 창의, 건강
- 교목 : 향나무
- 교화 : 동백꽃
- 교색 : 녹색
- 교가 : 박창관 작사, 류성석 작곡

남해의 푸른 물결 정기를 받아
청룡의 터전이다 보배의 전당
새롭게 갈고닦아 힘을 길러서
나라의 기둥이 되자 손죽어린이

삼각산 굳센 기상 희망을 안고
선열의 충절 찾아 모이는 요람
바르고 씩씩하게 지혜를 가꿔
새 진리 깨우치자 손죽어린이



손죽분교



손죽분교(2008)



석재로 만들기 위해 구멍을 뚫은 바위



손죽초등학교 개교 100주년 기념탑

6) 기타

손죽도내연발전소

1967년 6월부터 약 18년 동안 리사무소에 자가발전기를 설치하여 일몰 이후부터 자정까지 전기를 공급하였다. 일정 시간에만 전기를 공급하는 자가발전은 상당히 불편할 수 밖에 없었다. 1993년 5월 15일 총사업비 23억 3,500만 원을 들여 발전소를 착공하여 1994년 4월에 준공하였다. 전력선을 인근의 잔커리섬을 거쳐 소거문도까지 설치해 소거문도에도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⁴⁾



손죽도내연발전소



4) 착공 및 준공일은 『손죽향토지』 기준이며, 삼산면지에는 1992년 3월 착공하여 1993년 10월에 준공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7) 사회조직

(1) 청년회

1970년대에 새마을 청년회가 조직되어 20여 명의 청년이 잠깐 활동했으나 회장이 여수로 이주함에 따라 중단되었다가, 1979년 청년회를 재조직하여 40여 명의 회원들이 활동하였으나 10여 년 뒤에 해산하였다. 1998년에 다시 청년회를 결성하여 활발한 활동을 시작하였으나 고령화됨에 따라 손죽리청장년회로 명칭을 바꾸기도 하였다.



손죽도청장년회

(2) 어촌계

2023년 현재 어촌계원 수가 83명으로, 1960년대 어촌계가 조직된 이후 30~40여 명으로 유지되다가 최근에 상당히 증가하였다. 70~80대 이상의 고령자가 60여 명, 60세 미만이 20여 명으로 대부분 고령이며, 남녀 비율은 대략 5:5 정도이다.

어촌계의 수익사업은 1종지선 마을어장 5개 지선에서 일부 소득을 얻고 있으며, 역만도의 경우에는 외주 임차를 통한 행사계약을 하고 있다. 또한 김양식 면허 100ha를 임차하여 얻은 수익으로 마을 공동기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마을어장 지선 일부는 어촌계원들에게 해조류(툰, 가사리류, 미역 등)를 채취할 수 있도록 부분 개방하고 있다. 어촌계원 중 선박을 이용한 어업면허는 없으나, 일부 어촌계원들은 통발, 자망, 낚시 등으로 약간의 수산물을 얻고 있다.



손죽도노인정

8) 손죽보건진료소

손죽보건진료소는 1996년 7월 1일, 삼산면 손죽리 산 1189번지에 1천여만 원의 예산으로 착공하여 1997년 2월 준공하였다. 건물이 노후화되어 2007년 9월 4일 삼산면 손죽새터길 5-1에 신축 이전하였다. 한 명의 직원이 파견되어 간단한 치료와 응급조치를 취하고 있다.



손죽보건진료소



손죽보건진료소(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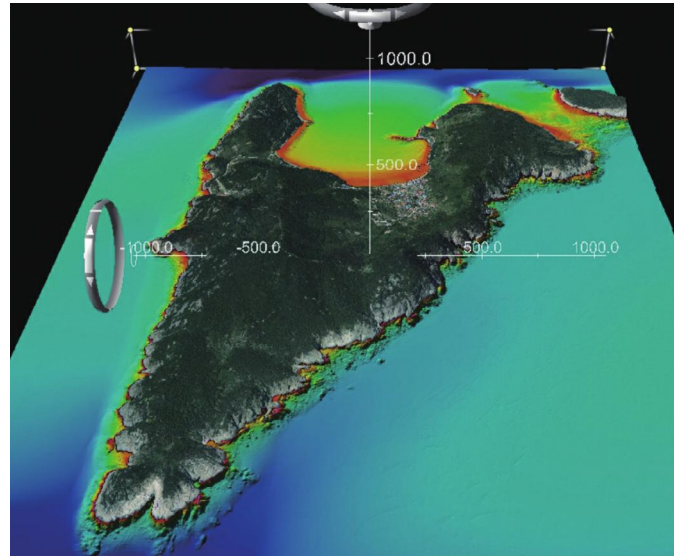
나. 지형과 환경

1) 지질

손죽도는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때 형성된 경상계 유천층군 유문암 및 유문암질 응회암(kav)으로 이뤄졌고, 주변 잔개리섬은 흑운모화강암(Kbgr)이 발달하였다. 삼각산 아래 동쪽 해안 지역에서는 화강암이 일부 분포하고 있다. 이 화강암은 석질이 좋아 채석하여 건축재로 사용했던 흔적이 보이며, 삼각산 남쪽 안부에는 화강암이 심층풍화 한 결과 푸석푸석하여 쉽게 부서지는 바위, 이른바 새프롤라이트(saprolite)가 관찰되고 있다.

한편 봉화산 정상 주변에는 화강암이 차별침식으로 산개된 블록 필드(block field)가 나타나며, 남동해안 쪽으로 해안단구로 추정되는 평탄면이 관찰된다. 손죽도의 주요 산은 섬 중앙에

솟아 있는 깃대봉[242m]을 비롯하여 삼각산, 봉화산 등이 있다. 깃대봉은 손죽도에서 가장 높은 봉우리로, 1896년 무렵 일본이 지도 제작을 위해 측량 기점으로 산꼭대기에 기를 꽂은 이후 지어진 이름이다. 봉화산은 조선시대 왜구나 적의 침입을 주변 지역에 미리 알리기 위해 설치한 요망소가 있었던 산이다. 서쪽 해안 일부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경사가 완만한 구릉지가 곳곳에 분포하며, 해안은 암석해안이 많으나 섬 북쪽에 형성된 만 일대에는 사질 해안이 발달하여 있다.



손죽도 육상 및 해저지형도

(1) 사빈과 역빈

손죽도 북쪽 만입부에는 사빈이 잘 발달하여 있다. 최근에는 해안 일대에 방파제와 접안시설, 해안 방호벽 설치로 해안지형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 특히 손죽해수욕장의 서쪽 역빈의 자갈이 파도에 휩쓸려 동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관찰되며, 해수욕장 한가운데 접안시설의 오른쪽에는 사질 퇴적물이 역빈 위에 새롭게 퇴적되어 사질 해안이 확대되고 있다.



손죽도 사빈



손죽도 북쪽 만입부에 발달한 역빈

(2) 암맥

손죽도 북서부 해안을 따라 여러 갈래의 암맥이 관찰된다. 암맥은 기존 암석의 틈을 따라 판상으로 관입한 화성암의 암체로 주로 반심성암으로 구성된다. 암맥을 구성하는 암석을 맥암(dike rock, vein)이라 하는데 맥암의 침식 저항 상태에 따라 기존 암석보다 두드러져 보이기도 하며 골을 형성하기도 한다.⁵⁾

(3) 암석해안

손죽도는 기반암이 풍화 침식에 노출된 암석해안이 발달하였으며, 해식애를 비롯한 해안침식지형을 잘 관찰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해식애에서 암맥과 함께 소규모 해식동이 관찰되기도 한다.



북서해안의 암맥



북서해안의 해식애와 암맥

2) 지질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때 형성된 경상계 유천층군인 유문암 및 유문암질 응회암(kav)으로 이뤄졌고, 주변 잔커리섬은 흑운모화강암(Kbgr)이 발달한다.

3) 토양

구릉지를 중심으로 유문암질 응회암 풍화토가 잔적 되어 비교적 얇은 토양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산록부와 꼭저부는 사면에서 공급되는 풍화산물이 붕적층을 이루고 있다.

5) 자연지리학사전

4) 기후

여수반도의 일원은 연중 쿠로시오 해류와 난류의 영향을 받고 있으며, 해양성 기후형인 남해안형에 속하여 우리나라에서 기온이 가장 온화한 기후를 나타낸다. 여수의 연평균 기온은 13.9°C로써 편차는 0.5°C이다. 월평균 기온의 변화를 보면 최한월은 1월로써 1.6°C이며 2월도 2.8°C에 불과하다. 3월의 4.3°C 상승을 시작으로 7월까지 매일 3.2~5.6°C 상승하여 8월에 25.9°C의 최고기온을 기록한다. 반면에 9월의 3.8°C 하강을 시작으로 매일 5.2~6.4°C 하강하여 12월에는 4.4°C에 이른다. 동계에 월평균 기온의 편차가 높아 1월은 1.7°C, 2월에는 1.5°C를 보인다.

5) 주변 해역조류

인근의 초도와 비슷하다.

6) 주변 환경

손죽도에는 광복 전까지 어업과 관련된 안강망이라고 하는 중선(仲船)배가 삼산면에서 가장 많았으며, 지금도 ‘중선배 오색 풍어기 달기’ 같은 마을 행사가 전승되고 있다. 주민은 대부분 어업에 종사한다. 농산물로는 고구마·마늘·옥수수·보리·양파·콩 등이 생산되며, 근해에서는 문어·삼치·방어·도미 등이 잡히고, 자연산 톳의 채취와 미역·김 등의 양식도 이루어진다.⁶⁾

7) 주변 도서

남동쪽에 초도가 자리 잡고 있으며, 동쪽으로 소거문도, 남동쪽으로 평도와 광도가 위치해 있다. 무인도서로 손죽도의 서쪽에 나무여가 있으며, 삼각산 북쪽으로 큰여가 있고, 동북쪽으로 건너반초섬이 있다. 손죽도와 소거문도와 사이에 잔커리라 불리는 장거리도가 있다.

6) 디지털여수문화대전(<http://yeosu.grandculture.net/yeosu>)



큰여와 방파제



나무여



건너반초섬



잔커리

다. 식생과 생태

2017년 가고싶은 섬으로 선정된 손죽도는 섬 전체가 화려한 정원이다. 집집마다 개성을 살려 화단을 일구고 담장을 단장하여 꽃을 키우고 있어 섬 전체가 하나의 잘 꾸며진 정원처럼 보인다. 그러나 섬마을 사람들이 정성으로 정원을 가꾸었지만, 실질적인 소득이 없다.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인 소득으로 연결된다면 특별한 소득이 없는 섬 주민들에게는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낼 것이다. 경제적으로도 보탬이 된다면 꽃밭가꾸기에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도 있을 것이다.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민간정원으로 지정하면 공식적으로 입장료를 받을 수 있다. 마을 전체를 민간정원으로 지정하여 마을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대안 등을 찾는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가고싶은 섬으로 지정되면서 추가로 섬 가꾸기 사업의 일환으로 화단 가꾸기 사업에 투입되는 예산을 집행 중이다.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만 치중하지 말고 그 예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지속가능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가고싶은 섬

1) 손죽도의 생태자원

손죽도는 뱃머리에서 동북 방향으로 소리쟁이, 개모시, 바랭이, 쇠무릎(우슬), 명아주, 해국, 비름, 담쟁이덩굴, 도꼬마리, 까마중, 하늘타리 등의 비교적 노방(路傍) 식물이 많다. 이는 밭이 많고 해안을 잇는 도로가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목본(木本)으로는 구실잣밤나무, 서어나무, 팽나무, 구기자, 섬쥐똥나무, 자귀나무, 예덕나무 등이 독립수로 있다. 기후 여건상 개간지 주변에도 늘푸른잎나무들이 많아야 함에도 떨기잎나무들이 많은 것은 개간 사업을 할 때 늘푸른잎나무숲이 파괴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가장골 방향은 손죽도의 서북 방향으로 바닷가에는 구기자, 환삼덩굴, 칩, 해국, 왕질경이, 방울비자루, 개모시풀 등이 있고 소사나무와 송악이 다소 군락을 형성하고 있다. 낭끝바위산에는 다정큼나무, 돈나무, 음나무, 가막살나무, 화살나무, 순비기나무, 동백나무 등이 있으나 곰솔이 우점종(優占種)한다. 현재는 곰솔 아래 지피(地被) 식물이 비교적 풍성하나 1980년대까지만 해도 늦가을에 연료로 사용되어 바닥이 드러나기도 했다.

비레봉과 지지미를 잇는 섬의 남쪽 해안은 100m 이상의 절벽으로 특히 이곳에는 인공림으로 방풍을 위해 조성된 곰솔이 잘 보존되어 있다. 지지미를 넘어가는 도롯가에는 개비름, 까마중, 질경이, 도꼬마리, 그렁, 환삼덩굴, 영경귀, 칩, 씬바귀, 망초 등 노방 식물이 많았다. 특히 사람의 왕래가 심한 곳이나 가축의 방목지일수록 이들의 생육상태가 좋다.

남쪽으로는 실거리나무, 다정큼나무, 돈나무, 예덕나무, 마삭줄, 천성과나무, 방울비짜루 등을 볼 수 있고 곰솔나무 아래에는 사스레피나무, 청가시덩굴, 청미레덩굴 등이 있고 개산초나무의 군락이 다소 형성되어 있다.

손죽도는 골목골목마다 담벼락은 담쟁이덩굴이나 마삭줄, 무늬마삭줄, 인동덩굴, 송악, 황금무늬송악으로 정비되었다. 몇몇 집 대문은 황금무늬송악이나 무늬마삭줄로 아치를 만들어서 대문을 장식하기도 했다. 밭과 밭 사이의 돌담에는 노란 개나리가 피는 자리에 돈나물의 노란 꽃과 송엽국의 분홍꽃이 동시에 피어 멋진 풍경을 만든다.

어느 집 대문을 들어서도 모두가 깨끗하게 정비된 꽃밭이 먼저 눈에 띄어 꽃피는 섬마을이다. 집집마다 경정적으로 정원을 가꾸는 것 같다. 마을 안길의 넓은 길에도 집단으로 가로수를 가꾸었다. 5월이면 빨간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는 뜰보리수를 심어서 은백색의 잎 사이사이로 뽀얀 붉은 속살을 드러내고 있다. 집집마다 담장을 넘어서 환하게 밝고 화사한 수국이 고개를 내민다. 말채나무, 황칠나무, 야생에서 자라는 도깨비고비도 정원으로 들어와서 정원수로서



산딸나무



유카



수국이 가득한 정원

역할을 톡톡히 한다. 다른 지역에 비해 월등하게 생육상태가 좋은 엉겅퀴가 풍성하면서도 큰 잎을 자랑하며 예쁜 연보라의 자태를 뽐낸다.

5월에 방문하면 하얀 꽃대를 쭈욱 내밀고 흔들거리는 샤프타데이지, 짙은 자색으로 복슬복슬한 털을 자랑하며 가녀린 꽃대를 흔들거리는 우단동자를 만날 수 있다. 조그만 얼굴에 입술을 그려놓은 듯한 붉은 세이지와 갖가지 색깔의 접시꽃도 우뚝 솟아 있다. 하얀 백합이 떼로 꽃을 피우면서 그 특유의 향을 풍기고 있어 지나가는 누구라도 금방 백합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하얀 꽃을 강렬하게 피워낸 유카도 풍경에서 큰 몫을 차지한다. 노란 비파가 누구라도 손을 내밀어 따먹을 수 있을 정도의 높이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를 유혹하고 있다.

형형색색의 장미는 끝물이라 다른 꽃에 비해서 크게 튀지를 못한다. 대신 찔레장미가 담장을 타고 연분홍의 얼굴을 하고 달콤한 향기를 풍기고 있다. 하늘거리며 가녀린 수레국화는 가을 하늘보다도 더 진한 파란색과 연한 분홍이 섞여서 눈길을 끌게 한다. 땃잎같이 정갈한 잎을 가진 붓꽃도 짙은 보라색으로 큰 꽃잎을 벌리고 있다. 가을에는 루드베키아의 강렬한 노랑과 털머위의 잔잔한 노랑이 자웅을 겨룰 것이다.

마을 안에는 뜰보리수, 도깨비고비, 시누대, 보리밥나무, 모싯대(모시대) 등을 조경수로 심어 놓았다. 특히 뜰보리수가 익어가는 5월에는 주민뿐만 아니라 손죽도를 찾은 방문객들도 마음껏 보리수를 따 먹을 수 있다. 도깨비고비는 우리나라 서남부 지역과 제주도, 울릉도 등지의 해안가 숲 가장자리에서 자라는데 관상용으로 마을 안에 심은 것이다. 모싯대는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는데 주로 숲속에 자란다. 꽃은 7-9월에 피는데 대부분 보라색이고 흰색이 드물게 있다.

삼각산 뒤 등대 쪽 바위 사이사이에는 로제트 식물같은 낮게 깔린 식물이 보이는데 작은 배로 파도가 심한 상황에서 접근이 어려워져 동정이 어렵다. 삼산면 지역의 기후조건이나 주변 지역의 식생으로 미루어 먼발치에서는 갯방풍으로 보이지만 가까이에서 살펴보아야 정확한 것을 알 수 있을 것 같다. 갯바위 사이로는 분재용으로 그만일 것 같은 소나무들이 우뚝 솟아 독야청청 곳곳이 자라고 있다. 섬 전체적으로 등성이와 등성이 깊은 계곡에는 넓은잎나무가 많았지만, 접근이 어려워 자세히 동정하지 못했다.

불바 쪽에도 소나무같은 바늘엽수림의 나무는 거의 보이지 않고 난대수종에 가까운 넓은잎나무들이 생태우점한다.

2) 손죽도의 식물 및 식생

폐교에서 이대원장군 동상 쪽으로 가는 길에는 영경귀 개체가 군데군데 보인다. 피를 영귀계 해서 영경귀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한다. 15세기 말에 구급간이방(救急簡易方)에서는 ‘한거식’로 불리었다. 한거식란 큰 가시를 뜻한다. 17세기 초 동의보감에서는 ‘항가시’로 기재되었다. 다른 이름으로 ‘가시나물’, ‘항가새’ 등이 있다. 또한, 천 개의 침을 가졌다고 하여 ‘천침초’라고도 불렸다. 닭의 벼슬같은 모양이라고 하여 ‘계향초’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호랑이를 닮았다고 하여 ‘호계’라고 부르기도 한다.

이곳의 영경귀는 개체가 엄청나게 크고 생육상태가 좋아서 튼실하다. 현재 우리나라에 자생하는 영경귀의 종류에 대해 열심히 검색하고 도감을 찾아봐도 적당히 붙일만한 종이가 없다. “영경귀”라고만 부르기에는 일반 영경귀보다 큰 차이를 보인다. 키는 큰영경귀보다 크지만, 꽃이 큰영경귀와는 사뭇 다르고 가시영경귀같이 대가 굵지만, 가시가 많지는 않다. 잎이 조밀하게 나는 것은 가시영경귀와 비슷하나 잎의 생김은 영경귀와 같아 어떤 종에도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 손죽도에 자생하는 영경귀에 대해서는 ‘손죽영경귀’라고 새로운 학명이 필요하다.



손죽도 마을길



예덕군락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야산에는 ‘청미래덩굴’ 때문에 진입이 어려웠다. 하지만 청미래덩굴 또한 ‘토복령’이라는 약초가 마스크를 타면서 무분별한 채취로 그 개체가 급속히 줄어든 종 중의 하나이다. 무분별한 채취로 가시가 있는 청미래덩굴이 없어지면서 쉽게 산속에 접근할 수 있게 되는 이점도 있다.

손죽도에는 옷나무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1980년대 이전에 학교를 마치고 소를 먹이러 다니면 옷이 많이 오르기도 하는데 손죽도에는 옷나무가 거의 없어서 옷이 오르는 사람이 없었다. 가장골(알데미)에 한 개체 정도 있었다고 한다.⁷⁾

지지미재와 봉화산 정상 사이에 있는 서당솔밭에는 수령 150년은 족히 되는 소나무림이 조성되어 있다. 셋바람이 불면 이 지대의 산새가 낮아서 바람이 마을로 세차게 몰아쳐서 농산물과 가옥들에 피해를 준다. 이를 막기 위해 1869년 서당에 다니던 학동들이 방풍림으로 소나무 숲을 조성했다고 전해지고 있다. 손죽리 산1010번지로 원래 마을 소유였으나 1946년 학교 소유가 되었다고 한다. 소바탕(우마장:牛馬場)은 옛날에는 화전놀이나 소풍 장소에 쓰이며 띠가 자라면서 빨기 받이었는데 지금은 잡목들이 들어차서 빨기들을 찾기 어려울 정도이다, 이대원 장군 사당 옆에는 1982년 250년 되었다고 보호수로 지정된 느티나무 있다. 세 그루 중에 어느 것 하나를 지정한 것인지 세 그루를 통으로 지정한 것인지 자세히 기록은 되어 있지 않다.

폐교된 손죽초등학교에는 일명 귀목이라고 하는 느티나무 3그루가 있다. 이 세 그루 중에서 제일 큰 나무는(가운데 나무) 소거문도 졸업생들이 졸업 기념으로 10년생 된 느티나무를 소거문도에서 가져다가 1944년에 심었다고 한다. 현재 90살이 되는 나무이다.

가장골과 무구장터 부근의 이대원 장군 묘역 앞에는 억새와 띠도 다른 곳에 비해 엄청나게 개체가 튼실하고 키도 크다. 땅이 기름지다는 의미이다. 사람의 키보다 큰 억새와 띠, 엉겅퀴가 뒤섞인 풀숲을 헤쳐서 이대원 장군 동상에 접근이 가능했다. 보리밥나무의 개체 수도 더러 보이면서 새끼손가락 마디만한 보리밥이 주렁주렁 열렸다. 어렸을 적 최고의 군것질거리였던 보리밥을 따 먹을 사람이 없어서 열매가 주인을 기다리듯이 고개를 떨어뜨리며 익어가고 있다.

가장골에서 삼각산을 바라보고 진짜지 위쪽으로는 1,000여 평이 족히 넘어 보이는 예덕나무 군락이 있다. 기후가 온난화되면서 예덕나무의 개체수가 늘어나기는 하지만 여기같이 크게 군락을 이루고 있는 곳은 흔치 않다. 예덕나무는 잡목으로 목질은 무르고 잔가지가 없어 떨감

7) 박영순 씨(일명 꽃순이) 증언



영경귀



부처손

으로도 별로 선호하지는 않았지만 가지가 굵어서 나무꾼의 지계를 빨리 채우는 데는 좋았다. 그래서 예덕나무는 푸나무를 하다가 지계를 채우고 싶으면 잘라 베었던 조금은 푸대접을 받으면서도 선호하는 수종 중의 하나였다. 현재 기후 온난화의 영향 및 땀감으로 쓰지 않아서 우리나라 남해안은 물론 중부 이상까지도 예덕나무가 우점종하고 있다.

5월에는 광나무꽃이 한창이었다. 들판이 온통 하얀 것으로 착각을 할 만큼 광나무들이 지천으로 꽃을 피웠다. 삼각산 쪽으로 난 데크길을 오르는 곳에는 부처손이 지천이다.

부처손은 전초를 건조한 것을 ‘권백(卷柏)’이라고 한다. ‘권백’의 약명은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에 상품으로 처음 수록되었다. 역대 본초서적에도 다수의 기록이 있으며,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권백의 약재로 사용된 것들은 이 속에 속한 여러 종의 식물이다. 『중국약전(中國藥典)』(2015년 판)에서는 이 종을 중약 권백의 법정기원식물 내원종 가운데 하나로 수록하였다. 손죽도에는 아직까지 사람들의 손을 타지 않아서 부처손이 많이 남아있다. 한때 그 약효가 전파를 타고 가정에서 화분 키우는 것이 대중화되면서 분재 등의 지피식물로도 부처손이 인기를 끌면서 사람들의 접근이 쉬운 곳에서는 이미 자취를 감추었다.

가까운 금오도의 경우 등산로가 본격적으로 생기기 전인 20여 년 전만 해도 등산을 하면 여기저기 바위틈에 부처손들이 붙어있었다. 커다란 암벽에 붙어있는 부처손은 등산객들의 기념사진 배경으로도 그만이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 손죽도에도 등산로가 정비되고 등산로가 삼각산 깃대봉까지 연결되었기 때문에 등산객들이 몰려들 것이다. 사람을 들어오게 하는 것에 목적을 두지 말고 현재의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지키는 것에도 신경을 써서 현재의 생태계를 잘 지켜내야 할 것이다.

우묵사스레피, 자귀나무의 개체도 군데군데 보인다. 작살나무 또한 잡목으로 땀감으로서는 더없이 좋았기 때문에 거의 벌채되어 상당히 귀한 대접을 받았으나 요즘은 쉽게 발견할 수

있는 수목이다. 여기저기 그 양중맛은 보랏빛 보석을 반짝이고 있어 가을 산행하는 관광객들에게는 상당한 눈요깃거리가 되어 주는 수종이다.

옛날에는 쉽게 볼 수 있었던 단풍마는 삼각산 쪽을 비롯한 손죽도의 모든 곳에 자주 눈에 띈다. 단풍마 또한 약효와 다이어트에 좋다는 전파를 타면서 무분별한 채취가 이뤄져서 그 개체 수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있다.

댄머리 쪽에서 몰파죽으로 가는 길목에는 이대가 군락을 이루고 있다. 삼산면 지역의 이대 군락들은 대부분 바람이 많이 부는 쪽에 방풍림처럼 조성되어 있다. 이대원장군 묘지에서 삼각산으로 오르는 길목의 조금 움푹 들어간 지역에 이대 군락이 조성되어 있다. 이쪽 지역의 산에는 정상까지 간간이 팽나무가 보이기도 한다. 한때 우리나라 산림의 80% 이상이 소나무였으나, 지금은 개체 수는 현격히 줄어들고 있어 정상부에 가서야 우리나라 산림의 대표 수종이 소나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을 정도이다.

손죽도는 화전놀이로 유명하다. 화전놀이는 참꽃(진달래)을 따서 전을 부쳐 먹으며 놀던 놀이이니 이 섬에 진달래도 많을 것이다. 진달래는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주의 주화이자, 경기도 수원시와 중국 연길시의 시화이기도 하다. 꽃을 먹을 수 있고 약에도 쓸 수 있어서 ‘참꽃’이라고도 부른다. 꽃 색깔이 붉은 것이 두견새가 밤새 울어 대 피를 토한 것이라는 전설 때문에 ‘두견화(杜鵑花)’라고도 한다. 간도 지역의 재중동포들은 진달래를 ‘천지꽃’, ‘천지화’라고도 부른다. 화전놀이는 지지미재 부근에서 치러졌으니 지지미재 부근에 진달래가 있을 것이나 그 지역을 조사하지 못해서 진달래를 확인하지는 못했다. 다만 자료에 의하면 지지미재는 띠(빨기)가 많았다는 자료가 있다.



화전놀이



화전

3) 육상동물⁸⁾

손죽도에 서식할 수 있는 동물은 직박구리, 동박새, 휘파람새, 바다직박구리, 섬개개비, 칼새, 팽이갈매기, 황로, 알락할미새, 가마우지, 매 등이다. 남쪽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청띠제비나비, 무늬박이제비나비, 제비나비, 배추흰나비, 남방부전나비, 암떡부전나비, 네발나비 등이 서식할 것으로 예상된다.



바다직박구리

4) 해양생물⁹⁾

저서무척추동물 및 기타

조간대 암반조사 결과 총 23종이 출현하였으며 해면동물 1종, 자포동물 1종, 연체동물 16종, 절지동물 3종, 극피동물 2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해면동물에서는 주황해변해면, 자포동물에서는 흰깃히드라가 출현하였으며 연체동물에



해양생물

서 세로줄조개사돈, 군부, 애기삿갓조개, 테두리고둥, 명주고둥, 보말고둥, 띠각시고둥, 방석고둥, 큰총알고둥, 입뿔고둥, 피뿔고둥, 털껍질돼지고둥, 타래고둥, 홍합, 지중해담치, 두드럭고둥, 절지동물에서는 거북손, 검은큰따개비, 갯강구, 극피동물에서는 별불가사리, 분지성게가 출현하였다. 멸종위기종 및 희귀종은 출현하지 않았다.

해조류에서는 총 52종이 출현하였으며 녹조류 4종, 갈조류 12종, 홍조류 36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채집된 종으로는 작은구슬산호말, 애기가시덤불, 지충이, 참까막살, 바위두릅, 구멍갈파래, 잎파래, 큰깃복슬털, 바위수염, 불레기말, 잘록이고리매, 바위주름, 연두털말, 참풀가사리, 개서실, 부채살, 참지누아리 등 다양한 해조류가 서식하고 있었다.

8) About전남의섬

9) 『2002 전국 무인도서 자연환경조사 전라남도 여수Ⅱ』(환경부, 국립환경연구원, 2003)



보호수



보호수 표지판



보호수 표지판



보호수

5) 보호수

전라남도에서 삼산면 손죽리 산1147번지, 산1164번지에 지정번호 15-2-7-5, 15-2-7-6로 느티나무 두 그루를 1982년 12월 3일에 보호수로 지정하였다. 수령(2023년 기준)은 각각 약 240년, 290년이고 나무 높이는 16m, 직경은 7.6m, 둘레는 2.4m이다.

지정번호 15-2-7-5 보호수는 설날과 추석에 마을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당산제를 지냈다. 지정번호 15-2-7-6 보호수는 마을 한가운데 위치하고 있으며 이대원장군 사당에 있다. 매년 3월 3일에 나무 밑에 제를 지냈다. 아랫사장나무는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데 수종은 느티나무로 1999년 나무가 노화되고 약해서 임업연구소에서 나무병원에 의뢰해서 상태를 점검하고 진단받아 관리받았다.

2. 역사와 문화

가.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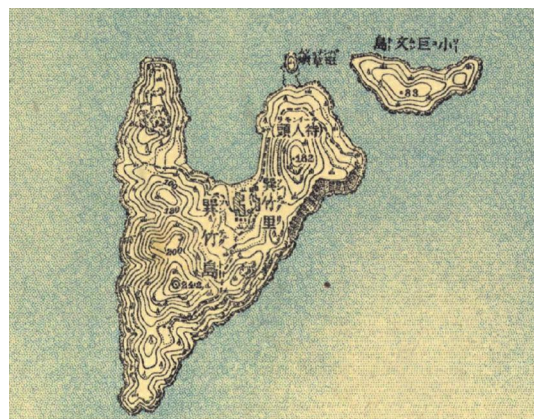
1587년 이대원 장군의 죽음으로 대원을 잃었다는 뜻의 손대도(損大島)라 하여서 손죽도가 되었다고도 알려졌으나 조선왕조실록 중종 55년에 ‘손죽도’에 왜구가 침입하여 물리친 기록이 처음 등장하는 걸로 보아서 그 이전부터 손죽도로 불려 온 것으로 보인다. 손죽도는 섬 안에 시누대가 많이 자라고 있어서 시누대 섬을 한자로 표기하면서 손죽도라 하였다고도 한다.

손죽도는 본래 흥양현(현 고흥군)에 속한 섬이었다. 1896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돌산군 삼산면에 속하게 되었다. 이후 1914년에는 여수군에 편입되었다가, 1949년에 여수군이 여수시로 승격된 뒤에는 여천군에 편입되었다. 1998년 3여통합으로 여수시에 속하게 되었다. 행정구역상 손죽리는 손죽도의 손죽리와 소거문도의 큰말, 광도의 광도리(너푸리)와 평도의 평도리를 합하여 이루어진 행정리이다.

2006년 손죽도 주민들은 기상청에 건의해 ‘먼바다’에서 ‘앞바다’로 변경하였다. 2015년 행정자치부와 한국관광공사에서 선정한 ‘가을 여행하기 좋은 섬’으로 선정되었다. 이후 2017년 12월 전라남도에서 ‘전남도 가고싶은 섬’으로 선정되었다.



대동여지도



일제강점기 지도

나. 마을유래

1) 손죽마을

삼산면 손죽리에 속하는 마을이다. 마을 입구에 신석기시대 말기의 것으로 추정되는 조개더미가 발견되어 아주 오래전부터 손죽도에 사람이 살았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1600년대 제주에서 고씨, 부씨 등이 최초로 입도하여 마을을 형성하였다고 전하나 정확하지는 않다. 마을주민들은 고부양터가 있어 제주 사람들이 손죽도에 들어왔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때 왜구들의 노략질이 심하여 주민들이 육지로 피신하고 사람이 살지 않기도 했다. 이후 이씨, 박씨, 김씨 등이 다시 입도하여 살았다고 전한다.



손죽마을

2) 지지미마을

지지미란 이름은 손죽도 마을 사람들의 화전 놀이터로 화전놀이 중 부쳐먹던 화전의 다른 이름인 ‘지지미’에서 유래된 이름이다. 이곳에 사람들이 살면서 화전놀이터 이름인 지지미가 마을 이름으로 굳어진 것이다.

지지미에 사람이 살기 시작하게 된 일은 1902년 동갑인 우연손 씨와 김은심 씨 부부가 결혼하고도 아이가 생기지 않자 공기가 좋고 아이를 갖기에 좋은 환경이라 생각하고 옮겨가게 된 것이 계기가 되었다고 한다. 우연손 씨가 지지미에 터를 잡자 손죽도 큰마을에 살던 사람 중

몇 사람이 옮겨가게 되면서 지지미는 작은 마을을 이루게 되었다. 현재 지지미마을은 옛 집터의 흔적을 알려주는 돌담들이 남아있어 마을의 흔적을 짐작하게 한다.



지지미마을터

다. 고고·역사유적과 유물

1) 조개더미

손죽도 조개더미에서 돌도끼와 토기편이 산 711번지에서 수습되었고, 산 632번지 유적은 조개더미가 광범위할 뿐 아니라 유적의 층이 두꺼워 많은 유물이 포함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손죽도 조개더미 유물은 바윗굴, 소라, 두드럭고동 등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압인문 토기, 구순각목문 토기, 침선문 토기, 자돌구와 같은 뼈연모 및 돌고래의 척추, 강치의 경골과 중수골 등이 수습되었다. 신석기 시대 전기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압인문 계통의 능형침선문 토기편, 구순각목문 토기가 보이고, 또 구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온 부분에 비스듬하게 침선문의 단사선문이 시문된 것으로 보아 후기까지 사람이 살았음을 알 수 있다.



조개더미(2008)



조개더미

2) 충렬사(忠烈祠)

(1) 충렬사 건립



충렬사



충렬사(2008)

① 충렬사 건립 시기(時期)

1637년(인조 15)에 세워졌다가 1590년(선조 23), 또는 1597년(선조 30)에 세워졌다는 기록이 있으나 모두 근거가 되는 문헌상의 출처가 불확실하다. 이대원 장군이 순직한 해(1587년)에 「손죽도 이대원 장군께 드리는 글(弔詞)」을 쓴 한천 정협(鄭協)의 문장을 통해 당시 사당이 세워졌음을 추측할 수 있다. 정협의 문장 가운데 “누런 과일 붉은 과일 놓고 오늘 여기 꽃다운 혼백 위로하면서”라는 글귀로 보아, 이대원이 순직한 후 바로 제단, 또는 사당이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② 충렬사 건립 주체

충렬사의 건립 주체가 손죽도 주민이었는지 아니면 녹도만호의 병영에서 했는지 또는 이순신 장군의 지시에 따라 능로군에 의해 건립된 것인지는 분명치 않다. 당시 왜구들의 침입이 잦아 식량 등의 도서민의 재산뿐만 아니라 사람까지 납치해 갔기 때문에 당시 손죽도에 주민이 있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정확한 기록이 없으나 손죽도에 일시적으로 피신했다가 다시 돌아왔거나 계속 숨어 살고 있던 주민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1995년 전라남도가 발행한 「도서지」에 의하면 1637년(인조 15)에 손죽도 주민들이 사당을 건립하여 매년 3월 3일 숭모제(崇慕祭)를 지낸다고 되어 있다. 1923년 계해년에 중수한 기와 지붕 사우(祠宇)도 60년 만인 1983년에 다시 중수하였다.

1988년 조선대학교 국사연구소 여천군 문화 유적편에 의하면 손죽도 산 1164번지 이대원

장군 사당은 1590년(선조 23), 1597년(선조 30), 1637년(인조 15)에 세웠다는 세가지 설이 있으나, 그 근거가 불분명하다고 했다. 다만 손죽도 주민의 구전에 의하면 초기에 사당을 만들어 중수를 거듭해 왔다고 한다.

③ 충렬사 중수(重修)

여수 손죽도 이대원 사당에서 매년 봄과 가을 두 번씩 송모제가 진행되었으나 흥선대원군의 서원철폐로 제사가 중단되었다. 일제강점기였던 1923년 손죽도 주민들이 힘을 합해 사당을 다시 짓기로 합의하였다. 유지들의 찬조금으로 300여 년간 이어 내려온 여수 손죽도 이대원 사당을 다시 세웠다. 해방 이후에서 5.16군사쿠데타에 이르기까지 어지러운 정국 속에서 여수 손죽도 이대원 사당이 무너질 위기에 처하자 1964년에 마을주민이 힘을 모아 사당을 다시 세웠다. 1982년에는 사당이 낡아지자 여천군의 지원금 100만 원을 비롯해 부녀회 기금, 출향 인사와 주민들의 성금으로 6개월 간의 공사 끝에 1983년 7월 3일 다시 세웠다. 당시 여천군은 여수 손죽도 이대원사당을 충렬사(忠烈祠)라 하였다.

이후 1986년 여름 태풍으로 사당 옆의 사장 나뭇가지가 부러지면서 사당의 지붕에 떨어져 걸치는 일이 있었다. 마을의 향토예비군이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지붕을 밟다가 기와가 상하여 비가 새며, 사당 뒤쪽 서까래가 무너졌다. 주민들은 여천군에 요청하여 군비를 지원받아 1987년에 보수하였다.

④ 계해년(1923) 이대원 장군 사우 중수기

어떤 책에 이르기를 「겨울이 온 후에야 소나무와 잣나무가 나중에 시들을 안다.」라고 했으니 사람에게 있어서는 세상이 어지러워진 후에야 또한 충신이 절개를 다했음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대체로 하늘에서 이 백성을 내리심에, 윤강(삼강오륜)을 중하게 여겼으니 윤강 가운데서도 충렬(충성과 절개와 의리에 열렬함)이 어려운 것이다. 대저 삶을 좋아하고 죽음을 싫어하는 것이 보통 사람의 정서이나 오직 충렬 지사라야 삶을 버리고 의로움을 취하며, 죽음 보기를 되돌아감과 같이 여겨, 비록 화살과 돌이 비오듯 쏟아지고, 칼과 창이 서리 같아도 용감히 앞으로 나아가 죽어도 후회가 없으니, 천부지성(타고난 성품)이 뛰어나고 열렬하여 오직 국가만 있는 줄 알고 자기 몸이 있는 줄은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면 누가 능히 이와 같겠는가? 이 때문에 많은 세월이 지난 후에도 그 풍모를 듣고 경모(존경하고 그리워함)하고 조두(俎豆: 제사상)를 차려놓고 받들어 모시는 것이다. 이것은 양심이 자연스럽고 성대하게 발현된데서 기인한 것이다.

오호라! 예전에 선조년간 임진년에 전란이 더욱 참혹해서 전함이 바다를 덮을 듯이 쳐들어오고 병사가 별떼나 개미떼처럼 둔취(여러 사람이 한 곳에 모여 있음)하여 가는 곳마다 대적하지 못하였다.

바람소리나 학의 소리를 듣고 놀라니 현재(선조대왕)는 성을 버리고 숨고, 병사는 패하여 돌아오므로 지존(선조대왕)께서는 몽진(임금의 피난)하시고 백성은 어육(魚肉)이 되었다. 이때에 녹도 수군만호 이대원이 본디 남을 능가하는 용기가 있었고, 항상 하늘을 높이 받드는 성실함을 닦고 있었다. 부하 병사 약간을 거느리고 곧바로 물길을 따라 적에 대항하려 하자 좌우 사람이 지금 적의 기세가 매우 날카로우니 가벼이 범하지 말고 잠깐 천기를 기다렸다가 서서히 승리를 도모하자고 말하였다.

공(公:이대원)이 태연하게 말하기를 「임금이 옥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하거늘 지금이 바로 그때이다. 내가 비록 미관말직으로 어모(禦侮: 외적의 침입을 막는 무관의 벼슬)에 있으나 어찌 편안히 좌시하겠는가?」라 하고 곧바로 배를 타고 적에게 달려가서 고흡군 손죽도에서 적을 맞아 싸워 적진의 장졸을 쏘아 죽인 것이 또한 많았으나, 종과부적은 그 이치가 진실로 그러한 것이다. 끝내 난군(亂軍) 가운데서 해를 만났으니 아! 또한 애처롭도다. 그 실적이 대체로 대동야승(조선 세종~인조까지의 저술서 53종을 모은 패관 문학서, 패관이란 민간의 풍속이나 정사를 임금이 살피도록 향간의 얘기를 모아 기록하던 벼슬 이름으로 서울대 규장각에 내장되었음)에 기록되어 있다.

왜란이 평정된 후 조정에서 그것을 듣고 천포(임금이 칭찬하여 포상함)가 용지(크고 지극함)했으며 녹도와 매영(전라좌수영을 말하며 지금의 여수)에 쌍충사(雙忠祠)를 건립하여 정운과 함께 배향할 것을 명하였다.

손죽도의 노부들이 공(公:이대원)의 절개가 죽음에 이르러도 변하지 않는 것을 흠모하고 공의 자취가 시간이 오래됨에 따라 흑여 민멸(泯滅)될 것을 우려하여 모두 말하기를 「장군의 전사가 마침 이 섬이니 남은 터에 성의를 표하지 않으면 안되겠다.」라 하고 이에 한 칸의 모옥을 지어서 입판(立版)을 받들어 매년 겨울과 봄에 제사를 받들어 모심이 거의 300여 년이다.

현산(峴山)에 해가 지니 숙자(叔子)의 생각으로 흐르는 눈물을 금하지 못하며, 금성(金城)의 봄풀에는 무후(武侯: 제갈공명)의 한이 남았구나.

영령과 의백(毅魄:군센 혼백)이 말없이 우리 마을을 도우니 제사를 지내면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숭배하여 받들고 덕을 사모해 우러러봄이 자손의 조상 섬기는 것보다 더하니 앞서 두루 성의를 다하여 오랫동안 힘을 드려도 해이하지 않았다. 지난 기미년(1919)에 사육이 허물어지고 빗물이 새어 들어와서 도민(島民)이 중수할 것을 의논하였는데 우리 집안의 이상의 군이 특별히 재물을 내어 기와를 얹어 날마다 일꾼을 먹여서 사당의 모양이 일신되어 아름답고 휘황찬란하니, 대개 이 섬은 비록 탄환같이 작으나, 앞으로는 장군의 입절(立節)이 있고 뒤로는 상의(商議)의 출의(出義)가 있으니 어찌 십실충신(十室忠臣: 환란으로 많은 사람이 충신이 됨)이 아니겠는가? 지금 내 동생 기태가 크게 그 전후의 일을 맡으니 실로 내가 칭송한다. 나에게 글을 부탁하니 내가 가상히 여겨 위하여 기록하노라.

계해년(1923) 맹하(孟夏: 초여름, 음력 4월) 상한(上澣: 10일 이전)

승훈량전 국자박사(承訓郎前國子博士) 완산(完山) 이기현 근지(謹識: 삼가 음각으로 적음)

발기인: 이기신, 김승구

게판유사(揭版有司: 높이 들어 올릴 나무판을 맡은 사람): 박오홍, 김치만

⑤ 구조

한 칸짜리 맞배지붕 문을 열고 들어가면 사당이 보인다. 문은 골판문으로 3단의 계단을 올라 가면 있다. 대지 198m², 건평 16m²의 '충렬사(忠烈祠)'라는 현판을 단 목조 맞배지붕 기와집이다.

41평 대지 위에 일각대문을 세우고 담장은 앞과 좌우를 자연석과 콘크리트로 건조하여 맞담을 쌓고 후면은 돌담을 쌓았으며, 중앙선에서 약간 뒤쪽으로 정면 3칸, 측면 1칸의 외관은 간단한 익공을 둔 겹처마 팔작집이다. 충렬사는 기단을 두지 않고 대지 위에 바로 반구형 가공 초석을 두어 그 위에 원주를 세웠고 원주 위에 창방과 처마도리를 두고 지붕틀은 내부에서 사모지붕으로 짜였으나, 외관은 팔작지붕으로 되어 있으며, 바닥은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전장은 연등 천정이며, 창호는 2분합 교살문을 달았다. 고목이 우거져 있는 경내를 기와 담장으로 둘러 정돈이 잘 되어 있다. 담장 밖은 향우회 측에서 따로 비각을 세우고 경계석을 놓아 마감하였다.

1990년 3월 경기도 평택에 사는 이대원의 11대 후손들이 손죽도 남쪽에 이대원의 묘를 썼다. 음력 3월 3일에는 이대원 장군 숭모제를 올리고 있다. 이대원과 관련하여 고흥군 녹동에 쌍충사가 있고, 여수시 남산동에 있는 영당 등이 있다. 어업에 종사하는 많은 사람이 바다를 지키는 장군이라며 추모하고 있다. 2003년 5월 27일 전라남도 문화재자료 제239호로 지정되었고, 2021년 11월 19일 문화재청 고시에 의해 문화재 지정번호가 폐지되어 전라남도 문화재 자료로 재지정되었다.



충렬사 이대원장군 영정



충렬사 현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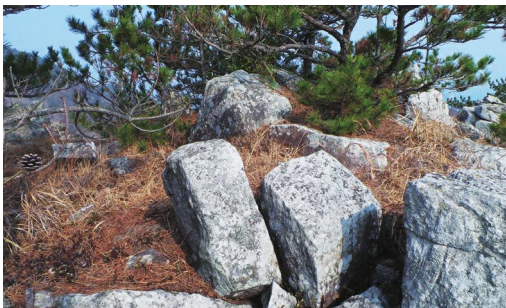
3) 손죽도요망(巽竹島瞭望)¹⁰⁾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산 1010번지의 해발 162.3m, 북위 34° 16' 45.40" 동경 127° 21' 35.80" 봉화산(烽火山) 정상에 위치하고 있다. 손죽도는 손죽열도의 중심 섬으로 요망은 섬 중앙부 최고봉인 깃대봉 약간 아래에 위치한다. 깃대봉은 1896년경 일제가 지도 제작을 위한 측량 기점 표시를 위해 산정에 기를 꽂은 이후에 지어진 이름이다.¹¹⁾ 깃대봉 정상에서는 수신전파탑이 시설되어 운영되고 있다. 동쪽으로 소거문도, 평도, 광도, 서남쪽으로 초도, 남쪽으로 면소재지인 거문도가 위치하고 있다. 산정에서는 멀리 북쪽의 고흥군 나로도의 봉래산봉수, 완도군 거금도의 적대봉봉수를 볼 수 있는 위치로, 주변의 넓은 바다와 섬들을 사방으로 조망이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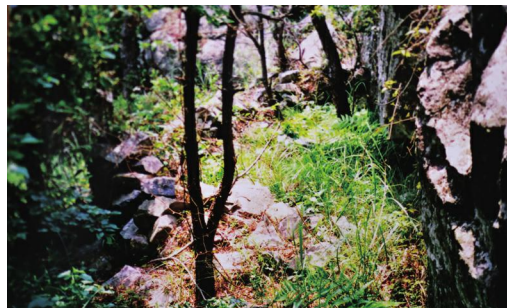
1789년에 발행된 고지도에는 봉화산이 '요망(瞭望)'으로 표기되어 있다.¹²⁾ 요망 유적은 산정의 바위 암반으로 형성된 약간의 평지에 위치하는데 바다 사방으로 후망이 가능하다. 서쪽 바위 끝에는 앉아서 조망하기에 편안한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의자바위가 있다. 정상 of 남쪽에서 산정으로 오르는 길의 약 40.0m 지점에 길이 약 10.0m, 폭 약 5.0m의 평탄지에 자연석을 이용한 축대 흔적이 남아있다. 북쪽에 긴 바위가 놓여있어 북풍을 피하기에 좋은 위치로 연대와 요망군의 주거지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손죽도 해역에 침입한 왜구의 이동 경로를 살피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요망으로 여겨진다.

주변 대응가능한 봉수, 요망, 망대 등의 직선거리는 초도요망 12.0km, 고흥 봉래산봉수 22.0km, 완도 적대산봉수 26.5km, 거문도 망향산요망 26.5km, 완도 평일도 망산망대 29.3km이다.

요망은 마을의 동쪽 바로 뒤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정으로 오르는 길은 등산로가 잘 정비되어 있다.



봉화산 정상부



남쪽 평탄지(2002)

10) 여수지역사회연구소, 『여수시 비지정 문화유산 기초학술조사』, 2019.

11) 삼산면지발간추진위원회, 『삼산면지』, 2000, 568쪽

12) 삼산면지발간추진위원회, 『삼산면지』, 2000, 568쪽



봉화산 전경



산 정상부 조망바위



깃대봉 수신전파탑

4) 기념비

(1) 구국충신 이대원장군 유적비

이대원 장군과 바다를 지키다 순국한 수군을 기리기 위해 손죽도 주민들이 1999년에 유적비를 세웠다.

- 비명 : 구국충신이대원장군유적비(救國忠臣李大原將軍遺蹟碑)
 - 위치 : 여수시 삼산면 손죽리 산
 - 건립연대 : 1999년 8월
 - 규모 : 총높이 109cm, 비높이 63cm, 측면 100cm, 두께 18cm
- 비문 : 손죽도는 이대원 장군이 임진왜란 5년 전에 왜구와 싸워 이겨 <전라좌도수군절도사> 교지가 내려오는데 왜구가 또 침입하여 살아생전 받지 못하고 순국한 구국한의 유적지다. 고향 평택은 손죽도

해전 때 충효관의 혈서를 써 보내 초혼묘를 만들게 하고 손죽도에서 구천에 한을 품고 무구장으로 유해를 묻어 조국 방어의 성지가 되고 있다. 그 고종 우산 안방준 선생이 <이대원전>을 지어 남기니 선생의 제자 용구 서봉령은 매학문집을 써 전국에 송포했다. 또 한천 정협 선생은 이십세 때 손죽도에 와서 제문에 조 이장군사를 올릴 때 <누런 과일 밝은 과일 놓고 오늘 여기 꽃다운 흰백 위로 하면서 ...중략... 넘름한 영웅의 모습 그려보며> 라고 흐느낀 것은 오늘의 손죽도 충열사 전신이 있었다는 것이고 화곡 정미명 선생이 그때 지은 녹도가에 <장군! 장군이여! 어드매 계시온고. 원컨대 장군의 몸, 긴 고래되어 바닷가에 숨었다가 왜놈들 흑시 우리 강토 가까이 오거들랑 성난 지느러미 길다란 어금니로 물어 삼켜 죽이옵소서> 라고 읊어 호국관을 일깨웠다. 그 외에 김천일 창의사 윤두수 감사 등 이장군의 충절을 상소했다. 조정은 이대원 장군의 어머니를 찾아 은전을 내리고 고흥에 있는 이대원 장군 사당에 5년 후 임란 때 전사한 정운 장군과 같이 모시게 되자 <쌍절사>라고 했다가 그후 쌍충사란 사액사당이 되었다. 문헌으로는 우계 성훈 선생의 시국대책 15조, 지봉 이수광 선생의 지봉유설, 유근 대제학이 편찬한 <동국신속생실록>, 고산 윤선도 선생도 쓴 충절조목이다.

현종 9년에 <가선대부겸 동지의금부사행 절충장군 전라좌도 수군절도사>라고 재교지를 내리고 또 <충신증 가선대부 병조참판 겸 동지의금부사 오위도총부부총관행 절충장군 전라좌도 수군절도사 이대원지문>이라고 정려문을 내렸다. 장군의 증손 이 석 수사는 아들 이항발을 시켜 민이승 선생에게 부탁하여 <이대원전>을 짓고 숙종 25년에는 남구만 선생이 지은 <이공 신도비>를 세웠다.

<중략>

장군이시여! 무명구국 충신이시여! 편안히 잠드소서! 그리고 다시는 침략없는 국태민안이 되게 목은 김정 척진 원한 바람과 함께 훨훨 날려 보내 해원상생의 손죽도가 되어 만사형통 되게하여 주옵소서.

순국 412주년(1999) 8월15일
 구국충신 이대원 장군의 군관 박면 장군 유적사편찬회 협찬하여
 만고충신 이대원 장군 유적비 건립회에서 세우다.



이대원장군 유적비

(2) 총렬공 이대원장군 동상건립비

조국을 지키기 위해 순국한 이대원 장군의 충효관을 자자손손 길이 전하고자 이대원 장군 동상을 건립하면서 손죽도 주민과 후원자들의 뜻을 기리기 위해 세웠다.

- 소재지 : 여주시 삼산면 손죽리 산
- 건립연대 : 2001년 12월 8일
- 규모 : 총높이 488cm, 비높이 150cm, 측면 213cm, 두께 217cm

• 비문 : 임진왜란 5년 전(1587)에 고흥 녹도만호로 부임하여 왜구를 전멸시킨 이대원 장군을 숭모하는 손죽도 주민과 함평이씨 및 사회 각계각층에서 정성을 모아 2001년 12월 8일 격전의 현장 위에 구국충신 이대원 장군의 동상을 세우니 이 어찌 손죽도 주민만의 소원이고 자랑이랴. 또한 주승용 여수시장(이대원 장군 동상건립회장)의 지원금 2천여만 원으로 도로를 개설하였고, 손죽도 출신 김필만은 1983년 7월 3일 부인 강귀례와 총열사 사당을 복원하기 위하여 삼산면 출향인을 찾아다니며 협찬금을 모아 4차례에 걸쳐 총열사를 복원하였으며, 1999년 8월 15일 장군의 묘소 앞에 손죽도 출신 종친회, 함평이씨 찬조금으로 강석운 선생이 제작한 유적비를 세웠고 동상건립유치회장의 직분으로 장군 묘소앞 상석을 기증했고 동상 건립장소와 좌대를 설치하고 도로개설 주변에 인접된 산주나 논밭 주인 10명을 박평환 전리장이 무상으로 기증받은 부지에 드디어 800m의 유적로가 개설하게 되다. 구국과 호국의 고장 손죽도! 대한민국 350여 개의 유인도서중 총효열 3절을 두루 갖춘 곳, 이곳 손죽도 말고 또 있으랴. 엄동설한 추위에 바닷가에서 해초를 뜯어다 사당에 지극정성으로 제사 지낸 부녀자들의 가상함을 어찌 잊을 손가. “구국충신 이대원 장군 동상 건립과 유적사” 발간에 즈음하여 조국과 민족을 위해 순국한 장군의 충효관을 자자손손 길이 전하고자 성금을 보내주시 분들과 후원자의 거룩한 뜻을 건립기의 이름으로 여기 새겨두고자 합니다.

글 : 남영식 남면파출소장
2002년 3월 3일 건립비석 기증자 김필만



이대원장군 동상건립비

(3) 이기신(李起申) 송덕비¹³⁾

전 주사였던 이기신의 행적을 기리기 위하여 문중에서 전 주사 이공기신 송덕비를 건립하였다. 삼화강암으로 된 기단과 비석이 있으며, 비신은 오석으로 되어 있다.

비신 전면 중앙에는 ‘전 주사 이공기신 송덕비(前主事李公起申頌德碑)’, 우측면에는 “백양국추[가을철] 족형 승훈랑 국자박사 기□□ 기록하다. 개국기원 후 540년 신미 가을 손죽리 종족 일동 창립(白羊菊秋 族兄 承訓郎 國子博士 起□□識 開國紀元後 五百四十年 辛未 秋 巽竹里 宗族 一同 柱立)”이라고 쓰여 있다.

- **비명** : 전 주사 이공기신 송덕비(前主事李公起申頌德碑)
- **위치** : 여주시 삼산면 손죽새터길 28-7 [손죽리 산1103]
- **건립연대** : 1931년
- **규모** : 총높이 297cm, 비높이 137cm, 측면 51cm, 두께 22cm

• **비문** : 人有一善一行之可記者必褒獎而發揮或騰諸簡冊或刻于貞珉以偏不朽者也昔范文正公有負郭田千畝以濟群族日有食而歲有衣至於嫁娶哀慶皆有贍助號曰義庄當時文人記實以褒之彭爲後生之矜式世級漸降人紀不修其視親近之家族有若疎遠之路人見利忘義往往有果墻爭田之弊寧不傷痛乎膳我族弟起申甫同是璫璜餘派流客湖南傳至五六世世以孝友聞爲一鄉之法家且子姓蕃衍同居桑梓之里自作花樹之隣源源常常歡情洽然且君妙齡承家一遵先憲勤儉治家稍爲潤產其奉先也墳墓碑碣之荒頽者獨自出力改封而整豎柱立祭閣春秋享祀務盡誠敬其事親也缸竭子職生而備志物之養沒而添風樹之勳營建影堂朝夕瞻調有若定省然以寓終身之慕其於族黨也敦敘之誼靡不用極貧賤之難保者及嫁娶之失時者無不自而優助焉往在戊午秋計其族三十四戶特出義金三千四百兩每戶均排以一百兩合成一己名曰義庄己逐年殖利至於數萬金之多存其本而取其利使之買土厥土之所出亦年年收聚以爲救活之資茲豈非永遠之計耶蓋規模一從義庄之制而兼之以殖貨反有勝於義庄差過幾年庶可見比屋皆封矣諸族莫不感頌咸曰賴君之惠演死者復活極貧者稍饒可謂今世之活佛此生此恩何以報答議豎一碑表彰於一世以耀無窮此吾輩結草之泡使起采千里塗足屬余以文其於敦宗之誼褒善之道義不敢辭略撮大概而記之云爾

• **해석** : 사람에게 하나의 선행이 있어 그것을 기록하자면 반드시 상을 주고 널리 알리니 혹 책에 인쇄하고 혹 비석에 새겨서 썩지 않도록 도모한 것이니라. 옛날 범 문정공이 산비탈 밭 천 이랑으로 여러 친족을 구제하였으니 날마다 먹이고 해마다 옷 입히고 결혼과 애경사에도 다 넉넉히 도우니 부르기를 의장이라 하니라. 당시 문인이 실적을 기록하여 기리고 후생들로 하여금 본보기로 하더니 세상의 금이 점점 내려가고 사람의 버리가 닳아지지 않아, 친근한 가족 보기를 저 멀리 길가는 사람같이 보고

13) 디지털여주문화대전(<http://yeosu.grandculture.net>)

이득을 보면 의리를 잊음이 왕왕 있어 형제간에 전답으로 싸우는 폐단이 어찌 마음 상하고 아프지 않으리오 훌륭한 나의 족제 기신 씨와 함께 이 선황 여파로 호남에 흘러들어 전한 지 56세에 이르니 세상에 효우가 들리므로 한 고을의 법가로 삼고 또 후손이 번창하여 종친의 마을에 함께 살다가 스스로 화수의 이웃을 만들어 원원상상에 기쁜 정이 흠족하니라. 또 남편이 젊은 나이에 집안을 이어 하나같이 선조의 법도를 따르니라. 근검히 집안을 다스려 점점 가산이 윤택해지고 그 선조 받들어 분묘와 비석의 거칠고 무너진 것을 혼자 스스로 힘을 내 봉분을 고치고 비를 바르게 세우며 제각을 창립하여 춘추 향사에 힘써 정성을 다하고 그 아버지를 섬김에 자식의 직분을 다하여 살아서는 지체의 봉양을 갖추고 죽어서는 풍수지탄을 더하며 영당을 경영 건립하여 조석으로 알현함을 훈정신성과 같음이 있어 종신지모를 붙이고 그 족당에 돈서지의를 마음과 힘을 다하지 않음이 없고 가난하여 어려운 자를 돕고 또 시집 장가갈 때를 놓친 자를 스스로 찾아가서 넉넉히 돕지 않음이 없었다. 지난 무오년 가을에 그 친족 34호를 헤아려 특별히 의금 3,400냥을 내어 모든 집에 100냥씩 고르게 배분하고 일계를 만들어 함쳐 이름하여 의장계라 하고 해마다 이자를 길러 수만금에 이르도록 많으니 그 원금은 두고 이자를 가지고 땅을 사고 그 땅에서 나온 것을 또 해마다 거두어 모아 구휼의 재물로 삼으니 이 어찌 영원한 계획이 아니리오? 그 규모가 의장의 제도를 따르고 아울러 재물을 번식하니 도리어 의장보다 나은니라. 몇 년이 더 지나가면 거의 가히 집집마다 다 좋게 만들 수 있음을 보리니 친척들이 감격하여 노래하지 않음이 없어 다 공의 은혜에 힘입어 죽음에 임박한 자가 부활하고 극빈자가 점점 넉넉해지니 가히 지금 세상에 생불이라 이르니라. 이 생명의 은혜를 어찌 보답할꼬? 의논하여 비를 세워 일세에 표창하여 영원히 빛내는 것이 우리들의 결초의 정성이라 하고 기재로 하여금 천 리 길을 걸어와 나에게 글을 부탁하거늘 그 종족을 두텁게 하는 의와 선을 기리는 도에 의리로 감히 사양하지 못하여 대개를 간략히 살펴 기록하노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기신 송덕비

(4) 열녀 이진경 비각

이진경은 이송호의 처로써 두 아들을 낳고 남편이 죽자 수절하면서 아들을 훌륭히 키워 그녀의 훌륭한 행실을 기리기 위해 비와 비각을 세웠다.

- 위치 : 삼산면 손죽리 산 1144
- 건립연대 : 1913년



(5) 효자 이상의 비각

이상의는 어릴 때부터 영특하고 웃어른을 잘 받들어 왔으며,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신의 손가락을 베어 수혈하였으나, 끝내 돌아가시자 이를 애통히 여겨 모친의 묘 옆에 초막을 짓고 3개월 동안 불효를 참회하며 시묘살이를 했다. 이에 마을주민들이 감동하여 그의 효성을 후세에 알려 본받도록 하기 위해 그의 사후에 비를 세웠다.

- 위치 : 삼산면 손죽리 산 1144
- 건립연대 : 1926년



라. 손죽도의 어제와 오늘

1) 하삼리 봉수 연락

통신시설이 발달하지 않았던 해방 직후까지만 해도 손죽도의 배당은 머리에서 불을 피우면 소거문도에서 배를 타고 손죽도에 왔다. 손죽도 삼청목에서 불을 피우면 평도에서 배가 왔다고 한다. 광도는 너무 멀어서 평도에서 광도로 중계했다고 한다. 조선 말기에는 초도와 손죽도가 합하여 상도(上島)가 되어 초도와 손죽도 간에 봉화로 행정연락이나 기타 연락이 이루어졌으며 그때는 봉화산이 이용되었다고 한다.

2) 사라진 지지미마을

지지미 마을 주변은 우연손 씨의 토지가 많았다. 큰 마을에 없던 논도 여러 마지가 있었는데 깃대봉에서 흐르는 물이 물래골로 내려가는 계곡에 다랭이논을 개간하여 논을 만들고 쌀농사를 지을 수 있었다.

지지미는 토질도 비옥하여 우연손 씨 집에는 3,000평이나 되는 넓은 밭도 있었

다. 주변 사람들도 지지미 주변의 개간하기 좋은 여건에 넉넉한 밭을 가지고 있었다. 지지미는 산 중턱 마을이지만 섬의 특성상 갯가에 해산물도 많아 여성들은 대부분 물질을 할 수 있었다. 손죽도 마을은 9반까지 반으로 나뉘어 있었는데 지지미도 한 반에 속해 있어 손죽도 마을에서는 섬을 둘러 바다를 나눠서 해산물 채취권을 나눠 가졌다. 나뉘진 개의 구역은 매년 돌아가며 바뀌 여건이 좋은 갯가 환경에 대한 불만이 없도록 했다.

1970년대 후반에는 지지미의 초등학생들이 다 모이면 20여 명이나 되었다. 학교까지 모여서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학교까지는 걸어서 한 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였다. 간혹 학교나 큰 마을에서 늦어져 어두워지면 지지미를 오가는 산길은 너무 무서웠다고 한다.

지지미마을에서 초상이 나면 큰 마을 사람들이 함께 올라와 장례를 도왔다. 당집도 따로 없어서 정월대보름 매구를 칠 때도 큰 마을 사람들이 올라와서 함께 어울리며 놀았다.



지지미마을터

3) 서당 솔밭

서당 솔밭의 소나무는 1869년에 서당에 다니던 학동들이 마을의 방풍과 조경을 위해 심었다고 전해와 약 수령은 150년 정도로 추정된다. 셋바람(동풍)이 불면 손죽리 산 1010번지 일대가 낮아서 바람이 마을로 세차게 넘어와 농산물 재배와 가옥들의 지붕에 피해를 크게 주기 때문에 이를 다소 완화시킬 목적으로 심었다고 한다.



서당솔밭 (2008)

서당솔밭이 있는 손죽리 산 1010번지 임야는 마을 소유로 있다가 1946년 손죽초등학교에 귀속되었다. 둘레가 2m가 넘는 소나무가 많았으나 소나무재선충 확산으로 일부 손상되었다.

4) 요가의 섬이 된 손죽도¹⁴⁾

절해고도인 삼산면 초도와 손죽도에 대한민국 요가의 창시자라 할만한 두 사람이 태어났다. 처음으로 한국 요가협회를 설립한 황영석 초대 회장과 한국요가협회의 2대 회장과 대한요가협회를 만든 김광백 회장이 두 사람이다. 황영석 씨와 김광백 씨는 고종사촌 간으로 황영석 씨의 고모가 김광백 씨의 어머니다.

1942년생인 김광백 씨가 요가를 만나게 된 것은 건강 때문이었다. 어린 시절부터 몸이 허약하여 병치레를 자주 하는 편이었는데 당시 초등학교를 졸업할 무렵에 갑자기 심장에 이상이 생겼다. 일상생활 도중에 갑자기 심장이 심하게 뛰고 숨을 쉴 수 없게 호흡이 가빠지면 아무 곳이나 드러눕게 되었다. 부모님들도 놀라서 당시 섬에 있던 침술사에게 침도 맞고 여객선으로 다섯 시간이나 걸리는 여수 시내로 가서 치료도 받으면서 별의별 치료를 다 받아보아도 차도가 없었다. 이런 심장 쇼크 상태는 1개월에 한 번 정도 찾아왔다. 당시 부모님은 안강망 사업을 하고 있어 여유가 있는 편이어서 여수에서 중학교를 진학했지만, 병으로 3년을 쉬어야만 했다. 쉬는 중에도 별의별 치료를 다 받으며 어떤 치료가 들었던지 차도가 생겼다.

1957년 친구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여수중학교에 진학하였다. 당시는 중학교 진학 시에도 시험을 치렀는데 기억에 꼴찌에서 두 번째쯤 했다고 알고 있다. 병치레 때문에 제대로

14) 한국요가의 창시자로 한국요가의 역사가 된 이야기를 지금은 낙향하여 고향 손죽도에서 생활하는 김광백 씨에게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공부할 수가 없었고 알고 있던 문제도 잊어 버렸다. 중학교 시절은 심장이 좋지 않아 운동이나 다른 활동을 하기가 어렵다 보니 공부밖에 할 일이 없어 차츰 성적이 올라 졸업 무렵에는 우등생이 되었다. 1959년 서울로 상경하여 중앙고등학교에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할 수 있었다.

1963년 고려대학교 상대에 진학했는데 운이 좋게도 수석합격을 하였다. 그러나 이때 까지도 심장병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아 가끔 심장 발작이 일어나 항상 건강에 대한 염려가 많았었다. 한 달에 한두 번 찾아오던 발작은 2~3개월, 3~4개월에 한 번씩 찾아왔는데 발작이 오면 드러누워 심호흡하며 가라앉는 법을 터득하였다. 2학년을 마치고 병역도 마쳤다. 1967년 대학 3학년 복학을 하였는데 명륜동에 있던 외삼촌 집에 기거하게 되었다. 이때 5살이 많은 외삼촌 형 황영석 씨가 함께 방을 쓰고 있었는데 불면증과 위장 장애 등으로 병원에서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지 못하고 휴학과 복학을 반복하며 병 치료를 위해 요가에 관심을 두고 배우고 있었다.



김광백씨

김광백 회장의 요가와와의 만남은 이렇게 사촌 형의 병 치료를 위한 요가와와의 만남 뒤에 본인도 심장병 등 허약한 건강 상태를 치료하려는 의지가 함께 만나면서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일본 잡지나 서적 등을 탐독하면서 알게 된 요가를 더 많이 알기 위해서 황영석 씨는 인도대사관으로 찾아가서 요가를 배울 수 있는 우편을 통한 통신 강의를 알게 되었다. 당시 인도대사관의 관계자들은 인도 요가를 배울 방법을 안내해주었고 그 방법은 인도에서 2주에 한 번씩 오는 통신 강의를 통한 학습이었는데 영어로 쓰인 요가 설명을 영어를 잘하던 김광백 씨가 번역하면서 자연스럽게 인도 요가를 황영석 씨와 함께 공부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당시 요가라는 새로운 건강 운동법을 배우는 열정의 청년들에게 2주는 너무 오래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었다. 이듬해(1968년)가 되자 인도의 한 요가원에 요가 전도사를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다. 한편 비용 마련을 위해 한국요가원이란 간판을 걸고 종로상가 단성사 극장 뒷골목에 20여 평의 요가원을 개설하였다. 회원을 모집하고 공개 강습 광고를 냈더니 함석헌 선생도 방문하고 모 대학 체육대학장, 단군선양회의 회장 등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온 인기 있는 강좌가 되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문교부 체육국에 사단법인 신청을 하였는데 처음에는 요가가 인도의 힌두교나 시크교도가 하는 종교적 활동이라는 이유로 퇴짜를 맞았다.

하지만 용기를 잃지 않고 요가가 생활체육으로서 어떤 장점들이 있는지에 치중하여 자료를 보완하여 추가 신청을 하여 법인 허가를 받게 되었다. 그리하여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한국요가협회가 정식 탄생하게 되었다. 요가원을 열었을 때 인도의 요가 선생 모티발라(Motivala : 지금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요가 스승)여사를 초청하여 시작하였는데 큰 호응을 얻으면서 요가원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1970년 6월 23일 한국요가협회는 초대회장 황영석, 김광백 사무국장으로 운영을 시작하게 되었다.

1970년 가을에는 한국일보사 장기영(당시 IOC 한국위원) 씨의 배려로 한국일보사 6층(100여 평)에서 요가 보급이 더욱 활성화되었다.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동국대학교 인도철학 교수였던 정태혁 씨가 1964년 일본의 사오다 박사와 함께 요가를 연구하여 책을 펴낸 것도 요가 보급에 도움이 되었다. 정태혁 교수는 이후 8년간이나 이사를 지내면서 한국요가의 이론을 두텁게 하였고 그 후에는 한국요가학회장을 다년간 맡기도 했다. 한국요가학회의 이태영 요가 박사는 1980년대 초에 입문하여 요가지도자 교육을 받았으며, 총무로 일하면서 정태혁 당시 이사에게 요가를 사사 받기 위해 동국대학교 인도철학 대학원을 거쳐 최초로 요가 박사가 되었으며 한국요가의 이론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김광백 씨의 약력을 살펴보면 국내에서, 1968년 한국요가연구원 개설, 인도 요가 전도사와 요가 강의를 시작하였다. 1983년 KBS TV '5분 체조' 요가 총 600회 지도와 1983년 MBC '이은하 요가 코너', SBS, EBS 등 총 700회 방송출현을 통해 요가를 지도하였다. 한국은행, 감사원, 청와대 등 초빙 교수로 요가 건강법을 특별 지도하였다. 삼성그룹, 현대그룹, 국제그룹, LG, 기아, 코오롱그룹, 포항제철 등 요가 연수 교육을 담당하였다. 2004년 1월 사단법인 대한요가협회를 설립하여 약 7년 동안 100개 이상 지부를 개설하였다.

해외 활동으로는, 1980년 일본 제6차 국제 요가지도자 총회(IYTA)에서 일본 요가의 대가 오끼마사히로, 인도 요가의 대가 사치다난다와 아이엔가 등과 함께 요가 연수를 하였다. 1990년 인도 오르빈도 요가아쉬람의 쿨카리니를 한국에 초빙하여 요가 연수, 요가 대가¹⁵⁾ 이미마간지스를 초청하여 요가강습을 개최하였다. 2005년 12월 인도 요겐드라 요가 대학¹⁶⁾에서 균형 생활 요가를 특별 강연하였다. 2007년 인도 뭄바이 옆 나노발라의 카이발리아다마 요가 대학 주최 세계요가대회에서, 습관적이고 직업적인 자세 쏠림의 발견과 그 반작용의 요가운동 처방법을 발표하였다. 이후로도 김광백 씨가 활동하였던 내용을 나열하려면 수 페이지에 이르는 분량이다. 건강을 잃었던 한 소년이 이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했던 삶의 여적이 쌓여 한국요가의 초석이 되었다. 명문대학인 고려대학교 상과대학 수석이라는 사회적 출세를 위한

15) 『요가의 혁명』 저자

16) 인도에서 최초로 생긴 요가 대학, 1924년 나노발라의 카이발리아다마 요가 대학보다 7년 앞섬

좋은 기반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는 미지의 길이었던 요가 지도자의 길을 남해 작은 섬의 사촌형제가 힘을 합해 개척하여 성공하였던 것이다.

김광백 씨의 설명을 들어보면 “요가는 삶의 다양한 방식과 조건들에 대한 행동의 전체적인 조화다. 이를 인도말로 ‘요가’라고 부른다. 요가의 뜻은 균형적인 조화다. 요가 동작을 통해 몸을 움직이고 명상을 통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다. 직업적으로 특정한 활동을 반복하면 몸에 행동의 치우침이 생긴다. 누구나 습관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는 습관이 있다. 마음을 다스리는 명상은 요가의 기본이다. 먹는 식습관도 육식을 많이 먹으면 체질의 균형이 깨진다. 특히 가슴을 활용해 늑골을 들었다 놓는 흉식 호흡법과 횡격막을 상하로 활동하는 복식 호흡법이 있다. 이 두 개가 균형을 잡아야 하나 복식이 약화되 흉식으로 치우쳐 버리는 것을 요가를 하면서 발견했다. 이들을 조화시키면 건강을 회복시킬 수 있다.”라고 말한다. 요가 전도사로서 너무 많은 협회 일정과 강의로 치유되었던 몸도 다시 망가져 대장암 수술도 했다고 한다. 암에 걸리게 된 원인을 생각해 보니 초빙 강의를 진행하면서 대소변을 너무 많이 참아가며 생활했던 탓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한다.

2003년부터 손죽도 생활을 이어오고 있는 김광백 씨는 귀향 이후 손죽도를 요가의 섬으로 만들고자 힘쓰고 있다. 한국요가의 원로이자 대가로서 김광백 씨의 행보는 가볍지만은 않다. 마을의 노인들을 위한 요가 교실도 수년째 이어왔으며 귀향하기 전 이미 고향 손죽도의 역사와 문화를 보존하기 위해 향우회를 중심으로 기금을 모아 1999년 『손죽향토지』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 책은 주민이 수백 명도 되지 않은 작은 섬의 기록으로는 너무나 방대하고 훌륭한 인문학 역사서이다.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5년 전에 남해바다를 수호했던 이대원 장군의 역사가 전해오고 한 때는 ‘물 반 고기 반’이란 말이 무색하게 수산물이 풍부했고 50여 척이 넘는 중선배가 선창을 메웠던 남해바다 중앙에 자리했던 손죽도답다는 생각도 들게 된다. 돌담으로 예쁘게 꾸며진 김광백 씨의 손죽도 집은 이미 요가를 하는 많은 사람이 일 년이면 수백 명씩 찾는 곳이다. 여수시가 준비하는 섬박람회 기간에도 요가와 관련된 콘텐츠가 계획된다면 우리나라 최고의 요가 스승과 작은섬 손죽도라는 매력만으로도 많은 사람에게 환영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손죽도의 김광백 씨와 이웃 섬 초도의 황영석씨의 영향으로 손죽도와 초도 출신 중에는 후대의 요가 지도자도 많이 배출되어 지금도 한국요가협회와 대한요가협회의 지도자 중에는 두 섬 출신 지도자들이 많다고 한다. 육지에서 너무 멀어 전라도 사투리도 더디게 변해 지명마저 독특하게 남아있는 절해고도의 두 섬이 한국요가의 산실이 되었던 것은 독도를 개척하고 살았던 이 섬의 선조들처럼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냈던 지혜로운 향토적 기질에 기인하게 된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본다.

3. 섬 생활의 변천

손죽도는 1999년에 『손죽향토지』가 발간되어 섬에 대해 비교적 자세한 내용들을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일부 연도 등 정확을 요하는 것만 확인하고 그 외는 간단하게 참고만 하여 주민 인터뷰 등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손죽도에 음향시설은 새마을운동이 시작된 1962년 이후에 생겨서 마을 사람들에게 공지사항 등을 확성기를 통해 알렸다. 음향시설이 없던 시절에는 리사무소에 ‘윗소리꾼’¹⁷⁾이 있었다. ‘윗소리꾼’이 시작을 알리기 위해 큰 목소리로 “뚝뚝기들¹⁸⁾ 들으시오!” 하면서 공지사항을 알렸다고 한다. 육성으로 알렸기 때문에 한 곳에서 말하는 윗소리로는 마을 전체가 다 들을 수가 없었다. 장소를 몇 군데 정해 놓고 외쳤는데 5곳의 윗소리 장소가 있었다고 한다.¹⁹⁾

손죽도에 오면 어릴 적에 고무대야를 타고 고흥 앞바다를 건너다녔다는 박기홍 씨의 바다를 무서워하지 않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다. 같은 바다를 보고 살았어도 한참 동무들과 팔뚝에 먹줄을 그었던 정분은 2명만 남고 다 떠났다. 어릴 적 물속에서 깨진 하얀 사기그릇을 달이라 생각하고 찾던 놀이가 물질하는 해녀가 된 이야기와 다른 손죽도 사람들의 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스물한 살 어린 나이에 손죽도로 시집와서 살다가 서울로 간 뒤 오랫동안 서울 생활 후 다시 손죽도로 내려와 통발을 던져 물고기를 잡는 김복자 할머니의 통발 인생 이야기도 새겨볼 만하다.

손죽도에는 가게가 딱 하나 있는데 이진호 씨가 운영하는 ‘손대점빵’이 그것이다. ‘점빵’이라는 말에 정감이 간다. 혼자 사시는 어머니가 심심하지 않게 시작했지만, 어머니가 요양병원으로 가셔서 무인점포처럼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손대점빵

17) 사전이나 방언집에도 윗소리꾼의 단어가 정리되어 있지는 않다. 다만 그 문맥과 쓰임으로 보아 “(공지사항 등을) 크게 외치며 알리는 소리꾼”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다.

18) 뚝뚝기는 ‘뚝뚝히’의 지역말이다.

19) 『손죽향토지』 P. 9~

남편과 함께 여수에서 이발소를 운영하다가 7년 전에 손죽도로 들어온 최기심, 박평호 부부가 손죽도에서 캠핑하는 기분을 이어가는 멋진 삶의 이야기도 늘어놓았다.²⁰⁾

손죽도는 누가 뭐라고 해도 요가 얘기를 빼놓고 말을 할 수가 없다. 우리나라 최초 요가협회인 ‘한국요가협회’ 초대 회장이 바로 손죽도의 김광백 씨²¹⁾이다. 김광백 씨는 1999년 『손죽향토지』의 편저자이기도 하다. 김광백 씨의 증언²²⁾에 의하면 조직 내에서 “회장의 장기집권 및 가족상속 등에 불만”이 생기면서 “대한요가협회”로 독립했다고 한다. 우리나라 요가의 산실이 바로 손죽도이다.

마을에는 참 사연도 많고 우여곡절도 많다. 손죽도 마을펜션을 지나서 마을로 올라가는 가운데 중심길이 있는데 오른쪽에 땅주인이 자기 땅이라면서 도로까지 포함된 땅에 벽돌담을 세웠다. 딱 봐도 뭔가 좀 불편한 사연이 있는듯하여 몇몇 사람과 인터뷰해보니 사연이 있단다. 땅주인의 불편한 사연이 빨리 해소되어 도로를 점령한 벽돌담이 하루빨리 철거되기를 바랄 뿐이다.

최근 손죽도를 이야기하면 김영란 씨가 어디에서나 등장한다. 암 치유차 왔다가 암치유 음식으로 전국적으로 유명인사가 되었다고는 하는데 손죽도의 토박이가 아닐뿐더러 인터뷰하지 못해 여기에서는 김영란 씨의 이야기는 생략한다.

여수에서 해양 관련 사업을 하는 이민식 대표에게 손죽도 토박이로 나이 드신 아주머니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해서 같이 박영순 씨²³⁾를 인터뷰했다. 이민식 대표의 사무실을 방문한 날 사무실은 어지럽게 짐들이 나와 있었다. 오래된 잠수용구라는 것을 이민식 대표의 업²⁴⁾을 알고 있어서 금방 눈치챌 수 있었다.

“이거 왜 이렇게 꺼내 났습니까?”

“내가 평생 모은 잠수장비인데 손죽도 박물관에 기증하려 합니다. 폐교에 박물관이 있으니 그곳에 기증하려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아래층 사무실 창고에도 가득합니다. 우리나라 초기의 잠수장비들도 있어요.”

20) 출처 : 전라도닷컴 ‘기획특집 손죽도의 여름1’

21) 김광백 씨를 인터뷰할 때 본인을 초대 회장이라고 소개했는데 한국요가협회 홈페이지에는 1970년 6월 23일 설립 당시의 회장은 황명석이고 김광백 씨는 사무국장장으로 표기되어 있다.

22) 2023년 5월 27일 20시 김광백 씨의 손죽도 자택에서 인터뷰

23) 박영순 : 일명 “꽃순이”, 손죽도에서 태어나 17살에 서울에 있는 작은 아버지 댁에서 유학하다 서울 사람과 결혼해서 서울에서 살았다. 59살에 손죽도로 다시 돌아와서 정원을 열심히 가꾸고 있다.

24) 이민식 대표(1953년~) : 손죽도 출신으로 해양산업을 운영하고 있다.

잠수장비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하지만 한눈에 보기에 오래되고 귀한 것들이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을 것 같다.

박영순 씨와 인터뷰를 시작하면서는 계속 “이런 것은 이모²⁵⁾가 잘 아는데” 하신다. 이난애로 들었는데 이남애 어르신을 이르는 말이다.



중천샘

손죽도에는 중천샘이 중심 샘이다. 중천샘²⁶⁾은 비가 오지 않아도 마르지 않는다. 옷동네샘과 샘터샘(팽나무 아래샘)이 있는데 샘이 깊어서 두레박으로 물을 길어 올리는 것이 매우 힘들었다고 한다. ‘알래미’라고 해서 바닷가 바로 위에도 있었는데 지금은 바다에 들어가버려 없어졌다. 송병갈 씨의 이야기다.

“동네 ‘이기동’ 씨가 이장하면서 연구해서 두레박으로 하지 않고 샘의 깊이를 낮게 해서 바가지로 물을 퍼서 쓸 수 있게 해서 편했다. 이기동 씨는 안강망 조합 설립자이기도 한데 한 사람의 깨어있는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게 해준 사람이다.”

옛날에 중천샘은 지금과 달리 주변에 부찬²⁷⁾이 있었는데 지금은 복개되어 버렸다. 이 부찬에서 빨래를 했다. 까만 빨랫비누로 명주 빨래를 하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니었다.

한때 손죽도에는 중선배가 55척이나 있었는데 명절 때는 봉구대를 세웠다. 만선 때 다는 오색깃발과는 다른 것으로 설에는 참종이로 꽃같이 만든 ‘봉구대’를 배와 집에 세웠다. 지난 손죽인의 날 기념식에서도 봉구대를 재현하였다. 정월보름에는 불꽃놀이를 했다. 솜방망이에

25) 이모 : 이남애(현재 87세) 전라도닷컴 컬럼에 나오는 할머니이다.

26) 중천샘 : 손죽도 사람을 인터뷰하면 누구를 막론하고 중천샘 이야기를 한다. 손죽도 사람들에게 중천샘의 위상이 어느 정도 인지를 가늠할 수 있다.

27) 손죽도에서는 또랑(도랑)을 부찬이라고 불렀다고 한다. 인근의 섬에서는 ‘부천’이라고도 했다.

기름을 문혀서 햇불처럼 들고 다녔는데 밤에 농악놀이를 할 때는 등불의 역할을 했다. 쥐불놀이와는 확연히 다른 형태였다.

어렸을 적에는 어느 시골마을 아이들처럼 제기차기, 구슬치기, 팥따먹기, 강치기(사방놀이), 소꿉놀이 등을 했다. 다른 지역에서 남자아이들이 주로 하는 구슬치기를 손죽도에서는 여자들이 같이했다는 점이 특이하다.

손죽도에는 어느 섬과 다르게 집집마다 있는 파란 물통이 없다. 섬 치고는 물이 풍부해서 집수물(우수)을 받아서 물을 쓰지 않고도 그냥 샘물로 생활용수가 충당되었다. 민가를 쪽 둘러 보아도 집수물을 받은 흔적은 찾을 수 없다. 유일하게 세숫대야와 양동이만 놓인 집이 있다. 화자이모²⁸⁾집이라고 하는데 물을 아끼느라고 빗물을 받아서 쓴다고 한다.

어렸을 적 소띠끼리(소먹이리) 다니는 곳은 장소가 구분되어 있었다. 알데미(“아랫이미”라고도 한다)는 몰따죽으로 소를 먹이러 다녔다. 우데미(웃이미)마을은 큰재골로 다녔다고 했는데 지도상으로 볼 때 거리가 만만치 않아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새터는 평전으로 소를 먹이러 다녔다. 소를 먹이는 곳에도 철저하게 마을별로 영역이 있었다.

봄에 어른들은 산다이²⁹⁾를 하면서 놀았다. 장구를 가지고 밤마다 산다이를 하면서 둘러앉아 무조건 순번으로 돌아가면서 노래를 불러서 손죽도 사람들은 모두 노래를 잘 부른다고 한다.

처녀, 총각이 모이면 추렴³⁰⁾을 하는데 추렴은 주로 밥을 많이 해먹었다. 죽을 써먹거나 각자의 집에서 가지고 온 음식을 먹기도 했다. 남의 집 것을 서리해서 먹기도 하는데 그때는 서리를 해도 큰 죄라 여기지 않고 그냥 놀이나 장난 정도로 인식하고 넘어갔다. 간식거리나 군것질거리가 없는 섬에 가끔씩 구멍빵 장수가 오면 보리나 마늘을 몰래 가져다가 주고 사먹었다.

3월 삼짇날에는 지지미골에서 동네별로 소싸움을 했다. 화전놀이는 5월에 주로 하는데 화전놀이 할 때도 소싸움을 하기도 했다. 소싸움을 하는 날에는 마을에서 집집마다 여자들이 흰 한복을 입고 막걸리 동이를 머리에 이고 날랐다. 흥이 오르면 3일 연속으로 노는 때도 있었다.

28) 화자이모 : 박영순 씨는 화자이모라고 불렀다.

29) 산다이 : 여수 및 삼산면 지역말로 정확한 어원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거문도에 영국군이 주둔하면서 일요일마다 쉬면서 노는 그들을 보면서 지역주민들이 오늘 무슨 날인데 노느냐고 물었더니 “Sunday”(일요일)이라고 했다. 일요일의 영국식 발음이 “산다이”로 들려서 즐겁게 노래를 부르며 노는 모습을 이지역 사람들이 “산다이”라고 변형해서 발음했다는 설이 있다.

30) 추렴의 방언으로 여럿이 얼마씩 돈이나 물건 등을 나누어 내거나 거두어서 모임, 놀이, 잔치 등을 하는 것을 말한다.

가. 손죽도의 생업

태풍이 불거나 큰 파도가 칠 때 마을로 덮치는 파도를 막기 위해 마을 앞 호안도로를 2중 제방 형식으로 쌓았다. 이곳이 마을사람에게 물량장 역할을 하면서 미역 등의 해산물을 채취하여 말리기에 안성맞춤인 장소가 되었다. 마을길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면서 흙먼지가 일어날 수 있는데 이곳은 바닷가라서 바람도 잘 들뿐만 아니라 깨끗하다.

남녀 5명이 이곳에 미역을 잔뜩 따가지고 와서 널고 있었다. 화물차에서 연신 미역 꾸러미를 내려서 이 이중 제방으로 던지고 있는 주민이 있었다. 이름을 물으니 투명스럽게 “송광철이요” 대답한다. 일을 하면서 바쁘기도 하겠지만 외지인을 경계하는 눈치였다. “원래 손죽도 출신입니까?” 하고 조심스레 말을 붙였으나 지금 바쁘니 나중에 얘기하자고 한다. 원래는 1965년 평도에서 태어나서 1994년도에 손죽도로 이사를 왔다고 했다.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바쁘다며 거절한다.



미역 말리기

“그냥 일하면서 답만 해주시면 안돼요?”

하면서 정태균PD³¹⁾를 들먹여가며 겨우 인터뷰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미역은 몇시간이나 작업한 겁니까?”

한 4시간 정도 작업을 하는데 일하시는 분들은 가족이 아니고 낚(일종의 작업자들을 이지역에서는 낚이라고 한다)으로, 하루 일당은 10만 원 정도 준다고 한다. 다만 돈으로 주지 않고 미역을 말려서 5kg 정도 주기도 한다. 미역 5kg은 15만 원 정도 되는데 앞으로 미역은 일본의

31) 정태균: 전라남도 섬발전지원센터 전문위원이다. 관광두레 PD 등을 하면서 손죽도에는 많은 지원을 했을 뿐만 아니라 손죽도가 처가여서 손죽도 사람이면 모르는 사람이 없다.

원전 방류수 때문에 계속 오를 수밖에 없다고 한다.

“미역은 어떻게 판매합니까?”

수협이나 상회를 통해 거래하지 않고, 완전히 개인적인 인맥을 통해 판매한다. 오랫동안 민박을 하다가 쌓인 인맥과 인터넷 등으로 주문하는 분들에게 택배로 보낸다. 택배비는 8천 원이 드는데 사람이 여수로 가지고 나가면 뱃삿이 1,000원이라 발품을 팔아서 택배를 모아 여수로 가지고 가서 붙이면 택배비를 절반 정도 절약할 수가 있다고 한다. 한번 미역을 먹어본 사람들은 계속 재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맥만으로 팔아도 공급이 달려서 다 공급해주지 못할 정도라서 판로 걱정은 없다고 한다. 원래부터 미역 채취를 업으로 삼았던 것은 아니고 발전소에 근무³²⁾하다가 짤리고(본인의 표현이다) 미역 채취를 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

미역은 날씨 때문에 한 해에 3번 정도밖에 채취할 수 없다. 작업한 미역은 3일 정도를 말려야 상품이 되는데 그날 작업량은 40 망태기 정도 되었다. 송광철 씨는 손죽도의 외도인 장커리, 질마섬, 나무여, 역만도, 반초섬 등의 해산물 채취권을 전부 3년 동안 매입해서 가지고 있다. 3년간의 해산물 채취권을 구입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런 건 말할 수 없다며 밝히지 않으려고 한다. 그래도 우리가 손죽도에 대해서 글을 쓰고 있으니 섬 주민들이 얼마나 돈을 버는지 등도 써야 해서 여쭙보는 거라고 했더니 조금 준다고 했다. 그럼 1년에 어느 정도 버냐고 했더니 한 5백만 원 정도 번다고 한다. 그것 벌어서 채취권 사고, 놈들 일당 주고 하면 남는 게 없지 않냐고 하니 채취할 사람이 없어서 채취권이 매우 싸다고 한다. 그래도 5배 정도는 번다고 하니 인건비 주고 남는 돈일 테니 계산해보면 채취권 구입 비용이 100만 원 이하라는 얘기가.

미역과 톳, 청각, 김 등이 주 해산물이다. 주로 톳 시기인 봄에는 농사 준비철과 겹치기도 하고 채취 시기가 짧아 사람이 없어서 채취를 포기한다. 청가사리도 많지만, 시간이 없어서 채취를 포기하고 미역만 채취한다고 한다.³³⁾ 가사리도 뜯어서 말리는데 가사리는 짝(가사리 뿌리에 붙어 있는 패각조각 등)을 떼는데 2~3만 원 정도의 비용이 들고 이틀 정도 작업해야 하는데 일손이 없어서 가사리 작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물에서 백도에 낚시하러 오는 사람들은 한번 오면 보통 2~3일간 낚시한다. 그러나 백도 인근 바다까지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삼산면 사람들만 가지고 있다. 입도는 안 되지만 삼산면민을 제외한 일반인들은 200m까지만 접근이 가능한 것에 비하면 아주 큰 특혜이다. 낚시 갔다 와서 돌돔이나 흑돔을 잡으면 거문도 수협에서 활어를 취급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가까운

32) 손죽도와 인근 광도 등은 자가발전을 한다. 정확히 어느 발전소에 근무했는지는 말하지 않았다.

33) 송광철의 인터뷰



미역 널기

나로도 수협으로 가서 판매한다. 나로도
에 한번 가는데 비용이 30~40만 원이 들
기 때문에 잡을 때마다 가지 않고 모아서
간다. 돌돔 15마리 정도 잡아서는 위판
장을 갔다 오는 비용도 충당하지 못한다
고 한다.

송광철 씨는 수협이 어민을 위한 유통망
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본연의 책임을 다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손
죽도 사람들은 삼산면에서 하는 공공근
로 및 노인 일자리를 제외하면 주민소득

이 거의 없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한다.

해녀들이 물질을 해서 전복, 해삼, 꾸죽, 홍합을 많이 잡았다. 홍합은 생으로 까서 열합(홍합을
10개씩 꽃아서 말린 꼬챙이를 일컬음)을 만들었다. 열합은 여수 시내로 가지고 나가 팔아서
돈을 만들던지 다른 생필품을 사오기도 했다. 배에서 잡거나 낚시로 잡은 생선은 간하고 말려
서 나로도로 붓짐을 싸고 가서 섬에서 귀한 쌀과 같은 곡물로 바꾸었다. 어떤 집은 밥도 주면
서 융숭히 대접하는 집도 있었지만 어떤 때는 하루 종일 밥을 굶고 다닐 때도 있었다고 한다.
이민식 대표는 배에서 잡은 것을 보성군 조성에 가지고 가서 팔았는데 돈을 갚지 않아서 돈 대
신에 토끼를 가지고 왔다고 한다. 이것이 손죽도에 토끼가 처음 들어오게 된 시초라고 한다.
물건을 팔러 가면 어떤 사람은 ‘까다’를 부리기도 했는데 일명 ‘위세를 부린다’를 이 지역에서
는 “까다를 부린다.”고 했다.³⁴⁾

손죽도에는 언제부터인가 기르던 흑염소가 관리가 안되고 야생이 되어 가파른 바위들을 타고
돌며 섬을 휘젓고 다닌다. 누구라도 잡는 사람이 임자인 것이다. 하지만 이미 야생에 적응해
버린 염소를 잡는 일은 쉽지 않아 뻘히 보면서도 염소들을 어쩔 수가 없다.

얼마 전 유정자(이민식 부인) 씨와 박영순 씨, 그리고 또 다른 언니가 지지미재에 오르다 골짜
기에 염소들이 몰려 있는 것을 발견했다. 여자 3명이 염소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돌을 던져
막으면서 마을 남자들에게 연락해서 11마리를 잡았다고 한다. 먼저 지혜를 발휘하여 염소를
몰아넣은 3명에게는 한 마리씩 배분하고 동네 사람들이 나눠 먹은 재미난 얘기도 있다.

34) 위 박영순의 인터뷰

1) 밭농사

옛날 손죽도에서는 주 농작물로 보리, 고구마, 옥수수, 양파, 파, 콩, 밀 등을 경작하였다. 그 외에도 밭에 목화도 많이 심고 마늘도 많이 심었다. 1970년대 이후부터는 전국적으로 혼식이 장려되면서 밀 등이 수입되자 경제성이 떨어져서 밀의 경작은 중지되었다.

1980년대 들어서면서 그동안 고구마와 보리를 고수하던 농작물은 경제작물로 대체되기 시작했다. 손죽도 주민들도 손이 덜 가고 경제성도 있는 취나물과 머윗대를 재배하기 시작했다. 한편 1970년대 후반부터 마늘을 마을 특화사업으로 재배하였는데, 어로활동을 하지 않는 가정에서는 마늘이 주 소득원이었다.

밭은 거의 대부분 목전이 되었고, 텃밭 정도만 관리하고 있다. 비교적 큰 섬임에도 거의 밭을 경작하지 않고 목전이 된 휴경지는 칩닝쿨이 점령해서 접근조차도 어려울 지경이다.

현재 작은 텃밭에서 고구마 몇 두둑과 참깨, 더덕, 마늘, 양파, 콩, 감자, 옥수수, 호박, 고추, 상추, 열무, 배추, 들깨, 오이, 무화과, 포도, 배, 복숭아, 비파, 토마토, 당근, 시금치, 생강, 토란 등을 재배하고 있다. 한편 일부 주민은 밭작물로는 큰돈을 벌기 어렵기 때문에 로즈마리 등과 같은 허브를 재배하기도 한다.



허브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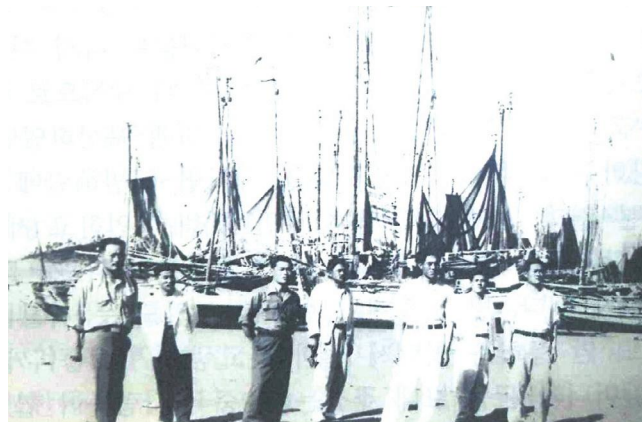
2) 논농사

손죽도는 논이 거의 없다. 송병갈 씨의 증언에 의하면 지지미에 20마지기 정도 있었다고 하고, 손죽도에서 가장 큰 논은 50~60평 정도 된다고 한다. 논에서야 당연히 벼를 심었겠지만, 벼를 얼마를 수확하고 겨울에는 이모작을 했는지 등에 대해서는 물어보지 못했다. 다만 『손죽향토지』에 주 농산물로 쌀이 재배되었다는 기록이 있으나 섬 여건상 겨우 자급할 정도가 전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어렸을 적 우리 집 논에는 벼를 걷어낸 뒤 보리를 심었다. 보리는 수확하기도 힘들고 수요도 없어지면서 보리 대신 시금치를 심기도 하고 마늘을 심기도 하였는데 손죽도도 그러지 않았을까 짐작만 해본다.

3) 어업

손죽도에서 번성하던 안강망이 쇠퇴한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얘
기들이 있지만 결정적인 이유는 어족자원 고갈 때문이었다. 안
강망이 번성했을 때는 손죽도에서 출발해서 추자도를 거쳐 중
국까지 갔다. 동지나해를 개발하여 상해 앞바다까지도 갔다. 우리나라와 중국이 수교하기 전
에는 중국 공안이 나와 총을 쏘서 선장실에 총알이 들어 온 적도 있었다. 병어를 2천 상자씩
잡던 시절에 영해 침범이란 이유로 배가 중국으로 잡혀간 적도 있었다. 김재완 씨는 안강망 업
계에서는 잘 알려진 사람이었다. 베트남까지 개척하기 위해 배를 크게 건조해 놓았는데 조업
이 잘 안되어 사업을 정리했다.

초기 손죽도 사람 중에서 여
수로 나가 안강망 하는 사람
들이 10명 정도 되었는데 선
원을 못 구해서 선주가 더 이
상 운영하지 못하고 배를 팔
았다. 주로 배를 직접 운전하
던 선장들이 배를 인수해서
자기들이 운영했는데 그들도
별로 재미를 보지는 못했다고
한다.



1950년 5월 연평도 파시에서 쉬고 있는 안강망 어선³⁵⁾

동지나해에 안강망을 개척할
때에는 동력선이 아닌 범선으로 갔는데 돌아오다가 조난당하는 사고가 있었다. 초도 사람 황
인영 씨가 배가 2척이 있었는데 두 척 모두 조난당해서 그만 망해버렸다.

남상현 씨가 원양어업을 개척해서 처음 출어했다. 직접 가서 잡은 참치를 공무원들이 청와대
로 가지고 가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참치를 가지고 사진을 촬영하기도 했는데 사업이 잘 안
되어 자살을 해버렸다는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

여름에는 서해 연평도까지 조기잡이를 하러 갔다가 살림살이를 사가지고 왔는데 가을에는 갈
치를 잡아서 쌀을 사왔다. 연평도까지 조업하러 갔다가 북한군에 잡혀서 못 내려온 사람도 있
다. 자급자족이 안 되어서 흑산도까지 가기도 했다.

손죽도 할머니들은 낚싯대를 들고 산내리등에 쪽 앉아서 콩치 낚시를 한다. 거문도는 갈치나
삼치잡이를 하나 손죽도는 삼치만 조금 잡힌다. 수온 상승에 의한 바다 환경 변화로 거문도에
는 자리돔이 들어왔으나 손죽도에는 아직 들어오지 않았다.

35) 『손죽향토지』

패류채취권은 마을의 상당한 소득원이었다. 1960년대 이전까지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개인적으로 패류와 해초 등을 채취하여 살림살이에 보탬이 됐으나 1966년 수산업협동조합 법이 제정되어 거문도수협으로 통합되면서 1967년부터는 패류 채취권을 입찰에 의해 독점적으로 위탁해서 채취하게 하였다. 1967~1974년 사이에는 1백만 원 정도로 채취권을 소유했다. 당시 마을에 젊은 해녀들이 있어서 제주도 해녀를 고용할 필요가 없었으나 1975년부터는 10여 명의 제주도 해녀를 고용해 왔다.

2톤급 동력선을 이용해서 손죽도 주민 2명 정도가 통발 어업을 하였다. 계절에 따라서 문어잡이도 하고 삼치잡이도 하면서 활어로 고흥의 녹동 등지에 납품하여 소득을 올렸다. 병어잡이 투망과 안강망의 전성기가 손죽도에서 사라져도 끝까지 고향을 지키면서 작은 배로 어업을 계속하였다.

1998년부터 시작된 이강망 운영은 과거 안강망 선원들에게 노년의 일자리를 창출해 줬다. 세 곳에 설치된 이강망 그물을 걷어 오면 그물 고치기 일감을 주어 소득이 생겼다. 이강망은 뱃머리끝 쪽, 공청배밑 쪽, 하느땀 굴바쪽에 설치되었다.³⁶⁾

나. 손죽도의 생활문화공간

손죽도에 도착하자마자 5명 정도가 탈 수 있는 작은 낚시배로 손죽도를 일주하였다. 박기혁³⁷⁾씨가 운전하는 배다. 일행 중 일부는 그냥 속소로 5명은 거센 파도를 뚫고 섬을 일주하며 식생을 관찰하고 지형을 익히며 조사하였다. 작은 배는 파도를 유유히 타고 넘으면서 우리를 안전하게 섬 가까이 붙이기도 하고 멈추기를 거듭하며 노련하게 섬을 탐방하였다. 작은 배에서 파도가 높다보니 뱃속에 남아 있던 식혜를



박기혁 어선

36) 이상은 송병갈 씨의 인터뷰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37) 박기혁 : 1954년 손죽도 출생으로 한국요가협회 사무장을 지내다 귀향하여 손죽도에서 산다. 자칭 부르스 박, 돌박이라고도 부른다. 기범, 영호, 영수 등 많은 이름으로 불리웠다고 한다.

쏟고 나니 속은 완전히 개운해졌다. 배는 작지만 선장은 배보다 높은 거친 파도가 치는 바다를 능수능란하게 운전하며 안전하게 우리의 숙제를 해결하게 해줬다. 좀 더 자세히 보기위해 배를 갯바위 가까이도 붙이면서 노련한 선장 덕에 두어 시간을 돌고 돌아왔다. 선착장에 도착하니 낚시배를 운영하는 이정균 씨가 나와서 “그 배는 바가지예요” 한다. 그 무슨? 노련하게 그렇게 배를 잘 운전한다고 믿었던 박기혁 씨는

“운전은 서툰데 바람은 불어서 등골이 오싹하더라”

그렇게 노련하게 보이던 운전 실력이 미숙한 실력이었고, 배 또한 여차하면 바로 뒤집어지는 그런 배였다는 것이다. 만약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그렇게 파도가 치는 날 절대 그 배를 타지 못했을 것이다. “모르는게 약”이라는 옛 속담이 얼마나 절묘한 말인가를 깨닫게 해준다. 다음 방문 때는 박기혁 씨가 운전하는 배는 절대 탈 수가 없었다. “아는 것이 병”이 아닌가? 민원처리중계소 소장의 임기는 행정직으로 1년 6개월이다. 손죽민원처리중계소에는 현지인 계약직 1명과 2명이 근무한다. 주말이라 집에 나가지 못하고 친구인 송광철 씨의 일을 돕는다는 민원처리중계소장의 말이다.³⁸⁾

“손죽도는 여객선의 운행이 불특정하다. 배는 원래 여수에 10시 40분에 도착인데 거의 11시 정도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다. 아침에 여수로 나가서 일보고 오후 2시 40분 배로 다시 들어오려고 하면 매우 서둘러야 한다. 현재 마을사람들 사이에 반목이 매우 심하다.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마을에 소득이 별로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희망사항이 있다면 여객선이 들어오더라도 수산물의 이동이 가능한 여객선이 들어오도록 해달라는 것이다.”



손죽펜션

낚시배를 운영하면서 소각장에 근무하는 이정균 씨는 1주일에 한 번씩 소각처리를 한다고 한다. 무구장터 부근에 무더기로 쌓여져 있는 스티로폼이 어느 정도 쌓이면 철부선이 와서 신고가서 여수시내의 소각장에서 처리한다.³⁹⁾

38) 삼산면사무소 손죽민원중계처리소 소장 인터뷰 - 송광철 씨와 미역 채취 작업을 하다가 집에서 같이 인터뷰하였다.
39) 이정균(1974년생) 인터뷰

새벽에 5시 30분 경에 뒷산 삼태바를 올라가 볼 요량으로 숙소를 빠져나와 걸었다. 날이 훤히
 게 밝았지만, 아직 해가 뜨려면 이른 시간이다. 삼태바를 오르는 중간에 울창한 대숲을 지나
 야 한다. 대나무 숲 사이를 지나는데 등골이 오싹하고 숲속에서 바스락거리면서 동물이 움직
 인다. 필시 멧돼지 같아서 도저히 혼자 못 올라가겠기에 다시 되돌아 내려왔다. 그래도 포기
 하기에는 아쉬워서 마을 등성이에서 혼자 망설이고 있는데 타지에서 들어왔다는 주민이 “삼
 태바에 가면 손죽도의 전경을 다 볼 수 있다.”며 올라가 보라고 권한다. “길도 잘 닦여 있으니
 가보세요. 최근에 제초 작업도 했어요.” 다행히 다른 일행을 만나 올라가니 가는 길은 풀을 베
 어서 정비를 해놓았다. 어느 정도 올라가니 데크길로 정비해 놓아서 상층부에서는 오히려 걷
 는 것이 용이했다. 삼태바 전망대에서 손죽도 전체를 볼 수가 있었다.

배 시간이 많이 남아서 지지미재 오르는 길 쪽에 있는 마을 가장 윗집을 올라가 보았다. 올라
 가는 길은 차가 다닐 수 있도록 포장되고 정비되어 길 좌우로는 키 큰 빛나무 가로수와 그 아
 래로 잔잔한 뜰보리수가 조경수로 심어져 있다. 5월에 조사 왔을 때는 보리밭이 아직은 털 익
 은 것들도 있었는데(교회 앞 나무는 완전히 빨갭게 익었지만, 반음지는 아직 좀 더 익어야 하
 는 정도였다.) 20여 일 만에 다시 오니 거의 대부분 보리밭은 때가 넘었는데 딱 한 나무에 보
 리밭이 아직도 달려 있었다. 큰 나무 아래서 햇볕에 가려 늦된 나무이다. 한 움큼 따먹고 나서
 갑자기 여기만 왜 남았지? 하는 의문이 들어 먹기를 멈추었다. 웬지 시골에는 여기저기 전해
 오는 음습한 얘기들이 떠올랐던 때문이다. 따먹기를 멈추고 다시 길을 재촉해가는데 마을 제
 일 윗집 바로 옆 밭에서 70대 후반의 어머니가 깨밭을 맨다. 깨는 이제 갓 5cm 정도 자라서 이
 게 깨가 나오려나 싶다.

제일 윗집을 들어서니 7시 경인데 벌써 말끔하게 차려입은 신사가 나오면서 신발을 신기에 말
 을 붙였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다
 른 인연으로 이미 안면이 있던 분이였다.

손죽도에서 이대원장군 동상 얘기를 빼고
 갈 수는 없다. 다른 동상이나 비석 이야기는
 빼더라도 선착장 앞의 최근에 세워진 이
 대원장군 동상 건립 경위는 이렇다.



이대원장군 동상(무구장터)



이대원장군상(선착장)

이민식 대표는 2014년 세월호 참사가 발생했을 때 민간잠수전문가로 초기 이주영 해수부장관을 도와 진도군 본부에서 정부의 자문역할을 했다. 팽목항은 맹수가 포효한다고 해서 맹골수도라고도 했다. 민간인 팀을 만들어 달라고 해서 18명의 베테랑 다이버들을 모아 한 팀을 만들었다. 군인팀과 해경팀 이렇게 세팀이 일을 배당받았다. 바닥은 47m가 가장 깊은 곳인데 이곳이 민간잠수사들에게 배당되어 작업을 했다. 라이프라인을 타고 배안까지 들어가 뒤지는데 물이 탁해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았다. 부산 88잠수팀이 질소잠수를 한다고 해서 13일 후 88잠수팀에게 인계하고 빠져나왔다. 챔바(잠수병치료 장비로 한전에서 빌려준 것) 현장을 벗어났는데 이때 정부에서 인건

비로 1,300만 원을 줬다. 이 돈을 어떻게 의미 있게 쓸까를 고민하다 손죽도의 인물인 “이대원장군” 상을 만들기로 생각해서 실행에 옮긴 것이다.

당시 우리나라에서는 돌만 7천만 원 정도 하고 조각하고 옮기는 일을 다하면 1억 원 정도 들었다. 국내에서 마땅한 가격에 제작할 곳을 찾을 수 없어 여기저기 알아보던 중에 다낭산 옥석을 사이공에서 조각하니 5천만 원 정도가 들었다. 장군 복식은 여수의 조각가 양해웅⁴⁰⁾씨가 자문했고 글씨는 박정명⁴¹⁾선생이 썼다. 돌과 조각은 합쳐서 5천만 원 정도 들었다.

손죽도는 2017년 가고싶은 섬으로 선정되어 활발하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호텔과 식당을 가고싶은섬 박기홍⁴²⁾사무국장이 같이 관리한다고 한다. 가고싶은 섬을 멋지게 성공시켜보겠다는 사무국장의 포부가 현실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40) 양해웅 : 1957년 여수출생으로 중앙대 예술대학 및 동대학원 회화학과를 졸업하고, 중앙대, 전남대, 경상대 등에서 강의했다. 서울, 부산, 광주 등에서 개인전 20여 회를 개최했으며, 단체전에도 400여 회 참가했다. 현재 아르블루조형연구소 대표로 있다.

41) 박정명 : 1954년 여수 상화도 출생으로 2008년 북경올림픽기념 세계 300인 서예가 초대전에 한국 대표 2명중 1명으로 참가할 정도로 대한민국서예협회에서 이름이 알려진 전서체의 대가다. 한국서예협회 이사과 전남지회장, 국전 운영·심사위원 등을 역임했다. 서예뿐 아니라 문인화, 서각, 사진 등 다양한 예술 분야에 능통해 지역에서는 ‘걸어 다니는 예술관’이라는 닉네임이 붙을 정도로 예술계에서 인정받고 있다. 여수시청 공무원에 재직 중이던 1979년부터 가훈 써주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42) 박기홍 : 1959년생, 가고싶은 섬 사무실장으로 손죽정원마을호텔(마을에서 관리)을 관리하고 있다.

다. 선박

1) 새마을호와 섬사랑호

1978년 국가 정책에 따라 해운항만청 소속으로 '새마을호'가 43톤급으로 배정되었으며 선장 포함 5명의 선원으로 매일 1회씩 손죽도를 기항지로 하여 운항하였다. 배의 운영을 민간 해운업자에게 위탁 관리되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주)신영해운이 관리 운영하다가 1993년 3월부터는 (주)세모가 운영하였다. 새마을호가 노후선이 되자 1999년 1월 1일 '섬사랑호'가 신조되어 배치됨으로써 50톤급으로 개선되었다. 현재 섬사랑호는 소기문도와 평도, 광도를 하루 2회 운항하고 있다.



섬사랑호



섬사랑호(2008)

2) 선박

손죽도의 어선 현황은 2023년 초 기준으로 어업등록 어선은 8척, 무등록어선은 10척으로 총 18척으로 조사되었다.

라. 손죽도의 어업

1) 손죽도 어업조합

1910년 8월 29일 한일합병으로 그해 9월 30일 조선총독부가 설치되면서 일본인 어업종사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선어업협회」를 두었으며, 1911년 2월 23일 어업조합규칙의 시행에 따라 1918년 3월 14일 거문도 어업조합이 설립되었고 1925년 손죽도 어업조합이 설립되었다. 1931년 1월 전남어업조합연합회(26개 어업조합 참여)가 설립되어 광주에 본사를 두고 여수

출장소를 1932년 7월에 개설하여 공동판매를 실시했다. 설립 당시 손죽도 어업조합은 광주 의 전남어업조합연합회에 속했다.

해방 후에는 1965년 6월 22일 한일국교 정상화와 함께 한일어업협정이 체결되어 이승만 정부 시절에 만든 평화선이 사라지고 근해 어족이 고갈되어 갔다. 이때부터 어업의 종류별로 어업협동조합이 창설되면서 1965년 10월 15일 근해안강망어업 협동조합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1966년 9월 28일 대통령령에 의해 수산인의 숙원이었던 수산청 제도가 생겼으며, 1977년 4월 30일 근해안강만 어업조합명칭이 근해 안강망수산업 협동조합으로 변경하게 되었다.

손죽도 안강망 선주들은 창설 당시부터 이사로 참여했으며, 여수 지소장으로 이순태(춘태)씨가 1972년~1977년까지 재임했다. 대의원으로는 초대에 김태영씨가 진출한 것을 시작으로 많은 인물이 전국 안강망업계에서 이름을 알렸다.

안강망은 조류가 빠른 곳에서 어구가 밀려가지 않도록 닻으로 고정시키고 조류의 힘에 의해 어류가 그물에 밀려들도록 하는 것으로 강제함정 어구법이라고도 한다. 어구는 그물 입구가 넓고 점차 좁아진 자루 모양이다. 서해와 남해는 고급 어종이 많아 옛날부터 넓은 그물 입구에 말목을 세워 고기를 잡는 주목망(柱木網)과 같은 원리가 쓰여왔으나 그것을 깊은 물속까지 이동식으로 발전해온 것이 중선을 거친 안강망이 되었다.

2) 안강망의 발전

안강망은 우리 조상들이 옛부터 어망법으로 사용해 오던 중선망(中船網)과 비슷한 것으로 일본에서 1896년 마시바야 시히데오(正林英雄)가 착안하여 1899년 목포, 전북, 충청남도 연해에서 시험 조업을 실시한 후에 1900년에 13척의 안강망 어선으로 위도, 연도, 연평도로 이동하면서 출어한 것이 시작이었다.

1901년 25척이었던 것이 1903년에 30척이 되었고 1925년에는 전국에 1,276척이 될 만큼 급속도로 보급된 것은 우리나라 전통어업인 중선망 방식과 비슷하기 때문이었다고 전문가들이 분석하고 있다. 1979년에는 2,309척으로 늘었는데 그렇게 되기까지는 많은 노력과 발전 단계를 거친 것이었다.

1950년 이전에는 10톤급 범선으로 어구를 1통(統)씩 사용하였으나 1960년대에는 20톤급으로 동력기계화하여 2통(統)씩이 되었다. 1968년경에는 30톤급 동력선으로 동지나해(東支那海)의 어장터가 개척되었으며, 정부자금 지원으로 1970년대에는 30~50톤급으로 동력선이 대형화되고 어구도 2~3통씩으로 늘어났다. 1975년대에는 50~100톤급 동력선과 어구 3~4통씩으로 확대되어 철선으로 교체하기 시작했다.

1982년 7월 6일 어구를 3통으로 제한하고 50~100톤으로 제한하는 농수산부령 제871호가 발령되었다. 1979년 근해안강망 수산업협동조합의 통계에 의하면 해상사고 선박이 16척, 사망 62명, 부상 25명, 어구유실 25통(統)으로서 사고율이 높은 어업조합에 속했다. 그 이유는 참나무 같이 무거운 나무로 만든 암해(아랫채, 침자(沈子))와 대나무로 만든 수해(웃채, 부자(浮子))가 크고 무거우며, 물 흐름이 센 곳에서 작업하므로 그물(어구)을 내리고(투망) 올리는(양망) 일에는 위험이 뒤따르기 때문이었다. 1971년 목제 암해와 죽제 수해를 모두 철제로 교체하여 외화도 절감하고 사고도 줄이게 되었다.

3) 손죽도 안강망 사업

1920년 손죽도에 안강망이 도입되기 전과 그후 10여 년간은 병어잡이 흘림배(유자망)가 성행했으며, 1~3톤 정도의 쪽배를 이용하여 손남시(입본스리)나 주낙(연승어업: 延繩漁業)이 함께 병행되었다. 1920년 최옥수 씨가 전라북도 위도 출신인데 안강망에 대한 어구, 기타 기술을 갖고 손죽도에 왔다. 이기신 씨가 처음으로 안강망(중선) 배를 건조하여 출어하기까지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 당시 여러 척의 병어배를 갖고 있던 이기신 씨와 그 이외의 병어배 선주들이 단계적으로 중선배를 건조하여 1930년에는 선주가 10여 명이 되었으며, 병어배도 10여 척 있었고, 이기신 씨는 유자망도 1척 가지고 있었다.

일본어선들이 조기잡이하려고 봄에 위도, 연평도 등지에 왔다가 여름이면 돌아가곤 했는데 돌아갈 때는 배를 팔고 가기도 하고 한국 선주 중에서 일본에 와서 배를 새롭게 건조할 사람을 알선해 가기도 했다. 그러한 교류는 법성포객주 김철수, 이채기, 목포객주 김양신, 박봉선 씨 등이 중매를 맡았고 자금용자도 했다. 따라서 손죽도 사람들도 배를 사오기도 했으며 일본에 가서 배를 새롭게 지어 오기도 했다. 이태익씨가 일본에서 중선배를 지어온 것이 처음이었으며 그후 여러 사람이 일본에서 배를 건조해왔다.

1945년 해방을 전후하여 중선배 척수가 55척에 이르는 상황을 이루었는데 한집에서 2척씩을 소유한 사람도 여러 명이었다. 1990년대 하반기부터 근해 어장지와 동지나해 어장지에 어족이 빈약해지면서 안강망 사업에 어려움이 닥쳐 점차 떠나고 거의 남아있지 않다.

1988년 선창수산회사를 만들어 사무실을 차리고 14명의 선주들이 서로 공동이익을 추구하면서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협력하기도 했다. 안강망 이외에도 1930년 이기신의 타뢰망(우다세)과 유자망, 1950년을 전후하여 석조망(이수구리)을 수년간 운영하였으나 발전 계승하지 못했다. 1960년대에 권현망(멸치잡이)을 몇 해 시도했으나 오래가지는 않았다.

4) 중선배 조업

손죽도의 옛날 중선배 조업은 구정을 지내고 나서 손죽도 주변 바다의 조기잡이부터 시작되었다. 휘황찬란한 오색기를 달고 봉기를 세우며 길긱놀이, 매귀긱, 밤긱놀이를 즐거운 설날을 보내고 험한 파도와 싸워가며 고기잡이를 떠났다.

아랫녘(홍양바다 주변)에 출어 시는 조금 때면 며칠씩 고향에 돌아올 수 있지만 웃녘(연평도, 칠산바다 등)에 출어할 때는 몇 개월씩 고향에 올 수가 없었다. 조기 때의 이동을 따라 전남 영광 법성포 주변 앞바다 칠산바다로 올라가면서 조업하고 연평도에서 조기가 산란하므로 그곳에까지 쫓아가서 조업했다.

조기들이 봄철 산란을 마치고 빠져나갈 때부터는 다시 내려오면서 조업하며, 흑산도 근해에서 강달이 조업을 하고 조금이 되면 솔치 비금도에서 고향사람들이 모처럼 만나 회포를 풀었다. 이렇게 벌어들인 돈으로 보리를 사서 배에 싣고 음력 6월부터 7월까지 손죽도에 내려오면 반년이 지나갔다.

손죽도 가족들에게 보리와 고기, 젓, 기타 선물을 내놓고 배는 강을 치고 1개월 정도 여름을 쉬게 되었다. 가을 출어는 조도바다, 추자도 근해바다, 부산 가덕도바다 치잡이로 진행되었으며, 그때 벌어들인 돈으로는 쌀을 팔고 지붕을 만들 벵단을 싣고 돌아왔다. 추운 겨울 구정을 앞두고 쉬게 되며 설날에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이렇게 1960년대 중반까지 계속되다가 평화선이 한일어업협정으로 없어지고 연평도 조업이 금지되면서 동지나해의 조업이 개척되었다.

손죽도에 중선배가 성업할 때는 선원이 1척당 7명 수준이었으며, 선장(사공)이 있고, 나이가 가장 많은 선원을 '영자님'이라 했으며, 일을 잘하는 선원을 '수동무'라 했고 밥짓고 잔심부름하는 초보자를 '화장'이라 했다. 벌어들인 돈의 분배(보합제)는 선주와 전체 선원의 비율이 보통 6대 4의 비율이었으며 일반 선원이 1짓대일 때 선장은 1짓대 이상이었다. 마른고기, 절간고기 등의 배분은 조금 달라서 선주가 3할(세짓대), 선장이 1.5할(한짓대 반), 선원이 1할(한짓대)이었다.

이러한 분배 계산을 하는 것을 '심덴다' 했으며 심덴 때는 선주집에서 떡을 하고 돼지도 잡아서 막걸리 소주를 준비하여 풍성하게 잘 먹었다. 노고에 감사하면서 다음해에도 승선해 줄 것을 약속하는 등 선원잡이도 이루어졌다.



1980년대 초 마지막 풍선 중선배들 43)

43) 『손죽향토지』

5) 손죽도 선주조합

1938년 중선배 선주들이 어구의 공동구입과 협력을 위해 선주조합을 결성하였다가 1945년 해방 직후 해산하여 손죽도 어업조합에 흡수될 때까지 7년간 활동하였다.

선주조합에서 안강망에 필요한 목제, 줄, 그물실, 대나무 등의 일체의 물자를 독점 공급하고 배급하면서 많은 이익을 발생하였다. 특히 부산 근해의 갈치잡이 출어와 같이 어업허가를 획득하는 일 등 수십 척의 어선들이 조업하는데 따른 각종 편의관계를 전담하고 있었다. 선주조합은 손죽도의 안강망 어업발전에 기여하였고, 1965년경에 근해 안강망어업조합의 창설에도 선구적 역할을 했다.

6) 손죽도 어업조합

거문도 어업조합이 1918년 3월 24일로 여수, 여천지방에서는 초기에 생겼으며 손죽도 어업조합은 1925년에 창설되었다. 조합장은 명예직이고 실무책임자는 (전무)이사였다. 어업조합은 주로 채취한 해초류에 대한 위탁판매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으나, 해방 직후 손죽도 선주조합의 업무가 손죽도 어업조합으로 이관되면서 안강망 관련 상권과 해초에 관한 상권을 모두 장악하게 되었다.

5.16 군사쿠데타 직후 1961년 6월 1일 관 주도에 의해 손죽도 어업조합은 문을 닫고 거문도 어업조합에 그 업무가 이관되었다. 1962년 4월 1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조합이 해산되고 거문도 어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1977년 5월 9일에 다시 거문도 수산업협동조합으로 명칭이 또 바뀌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7) 쌍끝이 저인망 (底引網, 대구리배)

송홍삼씨는 1920년 경 일본에 건너가 소년기를 보내고 선진 저인망 기술을 습득하고 1940년 경에 귀국하여 나로도의 고덕운씨의 대구리(건착선을 송홍삼씨가 처음 개조하여 저인망 대구리로 만들었음)에서 기술을 발휘하였다. 그는 크게 성공하여 선두주자가 되었으며, 그후 20여명 이상의 손죽도 출신들이 대구리배 선원 및 선장 진출에 공로자가 되었다. 한때 부녀자들의 노래 말 속에 “대구리배 선장이 돈자랑 말아라.”와 같은 내용이 등장할 만큼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했으며 1960년까지 계속되었다.

마. 손죽도 주민들의 생애사

삼도대왕이라 부르던 손죽도의 천석꾼 부자 이기신(李起申)

손죽도에는 일제강점기 당시 중선배를 세척이나 운영하면서 고흥 발포지역의 논에서 천 석의 쌀을 거둬들이는 이주사라 불렀던 부자 이기신 씨의 이야기가 전해진다.

이기신(1879~1935) 씨는 손죽도 이씨 문중에서 유명한 피동자라 부르는 이언계(李彦季 : 1785년생) 씨의 증손자였다. 손죽도 이씨 가문이 부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명당에 묘지를 잘 썼기 때문이라고 알려지는데 재미있는 사연이 『손죽향토지』에 전해진다. 손죽도 마을 안통에는 묘를 쓰지 않도록 주민들이 약속하여 서로 지켜왔었다 한다. 물론 댜머리 ‘송씨 선산’ 이나 간대끝 ‘장씨 선산’ 그리고 빗독개 ‘박씨 선산’ 등이 마을 안쪽에 일찍부터 있었으나 더 이상 마을 가까운 곳이 묘역이 되는 것을 마을 사람들이 바라지 않았다. 그런데 예부터 ‘까끔봉지’ 밑은 풍수지리의 명당으로 알려져 주민들은 서로 묘를 쓰고 싶었으나 마을이 가까워 못내 아쉬워하던 곳으로 그곳에 묘를 쓰려면 주민의 동의를 얻어야 했다.

그러나 ‘피동자’라는 별명으로 알려진 이언계 씨는 새벽이면 떡을 만들어서 마을 집을 한 집씩 몰래 접촉하고 설득하여 그곳에 묘를 쓸 수 있도록 주민의 동의를 얻는 데 성공하였다. 그리하여 그곳에 조부모와 부모의 묘를 이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런데 주민들은 묘지를 조성하는 동의 조건으로 부자가 되더라도 높은 이자를 받지 말라 했다고 전해진다.

이기신 씨가 부자가 되었던 것은 아버지 이홍의 씨가 일찍 무과에 급제하여 선전참서(宣傳參書)와 혜민원참수(惠民院參壽) 등을 역임하고 당시 돌산군수와의 친분이 두터워 군정을 상의할 정도였다고 한다. 이기신 씨는 상업에 재능이 있어 당시 고흥 나로도의 신흥 사업가인 지계준 씨와 교류하면서 재산을 급격히 일으켰다. 병어배를 여러 척 운영하여 어업에서 돈을 벌면, 해조류를 싸게 산 다음 본인 소유 운반선으로 일본과 직접무역을 통해 큰돈을 벌었다.



이씨제각



이씨제각 ⁴⁴⁾

44) 『손죽향토지』

일제강점기 신기술에 의한 각종 상품의 교류뿐만 아니라 주민들에게는 춘궁기에 곡식을 외상으로 나눠주고, 가을이면 받아들였는데, 대체로 해조류로 값을 치러서 받아들이면서 큰 이익을 얻게 된 것이 초기 재산형성에 큰 몫을 차지했다고 한다. 점차 모인 돈은 지계준 씨의 협조를 받아 고흥 일대에 많은 농토를 사들였고, 가을이면 거둬들인 곡식을 춘궁기에 마을에 풀어 놓기를 반복하여 해조류 수출로 이어가서 가을에 거둬들인 곡식이 1천 3백 석에 도달했다고 한다.

그러나 일제강점기 고리대금업이나 소작을 주는 지주와 같이 곡식을 빌리는데도 높은 이자를 부담했는데 예를 들면 봄에 두 말의 쌀을 빌리면 가을이면 세 말을 갚아야 하는 50% 이율이 일반적이었다. 이는 봄에 빌려 가을에 갚으니 실제 6개월에 50%를 물어야 하는 높은 이율로 섬살이가 어려운 이들에겐 잡음도 있었던 모양이다.

다음은 이기신 씨의 아들인 이강설 씨의 마을주민에게 기부했던 미담이 실린 1928년 10월 22일 동아일보 기사이다.

“전남 여수군 삼산면 손죽리 이강설 군은 금년 십오 세의 소년으로 경성 모교보에 재학 중인데 음력 팔월 십오일은 군의 돌아가신 어머니의 기일이어서 귀가하여 부친의 양해를 얻어 벼 이백여 석을 손죽도 주민들에게 나눠주고 기일의 의미를 표하였다는데 소년은 이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으로서는 능히 행치 못할 여러 가지 미담이 있어 많은 사람이 군의 장래를 유망하게 여긴다더라.”

이강설 씨는 1914년생으로, 서울 보성고보를 졸업한 유능한 청년이었다. 고향에 와서 마을 사람들에게 많이 베풀 것을 부친에게 늘 권유했다고 한다.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냥 나누어 주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한 것이 주변에 알려져서 주민들은 이강설 씨를 좋아했다고 한다. 보성고보를 졸업한 이강설 씨의 행적에는 독립운동과 연관된 기록이 있어 손죽 향토지의 독립운동 관련 기록을 옮긴다. 독립운동 관련 기록은 이기신 씨의 장례식 관련 호남평론 김우성 기자의 기록에도 독립운동으로 함께 감옥에 갇혔던 내용이 나타난다.

이강설(李康高: 1914년생) : 서울 보성고보를 졸업했다. 당시 시국 상황이 1929년 광주학생운동이 일어났고 1932년 윤봉길, 이봉창 등의 폭탄 투척 사건이 발생했던 것으로 국내에서도 각급 학교에서 독립운동이 태동하고 학생 비밀운동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이때 일본은 1925년 이후부터 조선공산당에 대한 해체를 법적으로 획책하여 많은 독립정신을 가진 인사들을 사회주의자로 몰아서 처단했다. 이강설 씨도 보성고보 시절의 학생운동과 연루되어 사회주의자로 몰려 구속되고 옥중에서 모진 고문으로 죽게 되어 출감되었으며, 출감 후 곧 타계했다.⁴⁵⁾

손죽도에서 직접 중선배를 운영하고 일본과의 무역을 주도하며 사업을 통해 큰 부를 형성했던 이기신 씨는 57세 때 비교적 이른 나이에 사망하였다. 그런데 이주사에게는 30살 차이가

45) 이강설씨 여동생 이강엽씨 외에 문중분들과 많은 주민의 증언

나는 서울댁이라 불렀던 셋째 부인이 있었는데 이주사가 죽은 뒤 재산을 탐하여 아들인 이강설 씨를 학생 독립운동가로 모략하여 당시 일제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한다. 부친 사망 후 체포된 이강설 씨는 감옥에서 갖은 고문을 받았고 다음 해인 1936년에 감옥을 나온 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부자 이기신 씨와 전도양양하던 아들 이강설 씨마저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자 셋째 부인과 재산을 지키려는 이씨 문중과의 재판 내용이 손죽 향토지에 전해진다. 3년여 이어진 재판으로 천석꾼의 그 많던 재산 대부분이 없어졌다고 한다.

다음은 호남평론(湖南評論) 1936년 신년호에 이기신 씨의 상가를 찾아간 당시 조선일보 김우성 기자가 실었던 글이다. 내용을 살펴보면 뛰어난 미모의 젊은 부인이 남편을 잃고 슬퍼하던 모습이 애처롭게 그려졌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주민들에게 알려진 여인의 실제 모습은 재산에 눈먼 탐욕스런 모습이다. 가짜 임신부 노릇을 하여 본인이 낳지도 않은 아들을 세우고, 재산을 빼돌리다 발각되었으며 급기야 재산을 챙기려는 재판으로 모두가 피해를 보며 그 많던 재산을 날리게 되었던 사건으로 기억되고 있어 손죽도 천석꾼 부자 이기신 씨의 인생무상 사연이 애달프다.

고도(孤島)의 절경(絶景)과 상가소부(喪家少婦)

바로 며칠 전입니다. 어느 친구가 와서 이렇게 머리만 앓고 있을 것이 아니라, 바람도 쐬 겸 손죽도 이 씨 상사에 조문이나 하고 돌아오라는 권고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임도 보고 뽕도 탄다는 마음으로 문상할 것을 작정하고, 용기를 내어 벌떡 일어났습니다.

손죽도는 거문도 초도와 함께 여수군 삼산면에 속합니다. 그런데 세상을 이미 하직하였다는 이기신 씨는 비록 섬에 사는 백성이나 백만장자에 삼도대왕(三島大王)의 칭호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나 나와는 평소에 서로 알기는 하지만, 특별히 교제해본 일이 없고, 상주되는 강설 군 하고도 그리 친분이 있다고는 할 수 없으나, 몇 년 전에 모 사건에 피의자로 부자유한 신세가 되었을 때,⁴⁶⁾이 군도 또한 같은 그물에 걸려, 오랜 시일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한 일이 있으니, 그것은 네가 한잔내면, 내가 한턱 쓰는 식의 술친구보다는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곳을 가려면 여수 중앙동 부두에서 제주도행의 배를 타야 하므로 3등 선표를 가지고, 오전 10시 출항하는 황양환(晃洋丸)에 올라탔습니다. 삼등실을 허리를 굽혀 내려다보니, 승객의 거의 전부가 제주도 해녀들로 초만원인데 마치 생선을 재어 놓은 듯 하였습니다. 웬만하면 그 속에 끼어 앉아서 창파에 몸을 던져 험한 파도 속에서 육탄전을 해야만 밥을 먹게 되는 그들의 애처로운 생활상과 아울러 모든 정취를 들여보는 것도 전혀 무의미한 일이 아니겠지만, 원래 배에 익숙하지 못한데다가 더욱이 말을

46) 편집자 주 - 독립운동 혐의로 투옥되었을 때

알아들을 수 없으니, 그들은 무엇이라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주고받는데, 서로 다른 민족과 민족이 상대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장님이 씨름 구경하는 현상이었습니다.

이에 나는 쓸데없이 불쾌하여 주제넘게 선원을 불러 거의 명령조로 “이등석으로 옮기겠노라”하고, 대답을 들을 필요도 없이 나오니, 그는 무슨 생각인지 힐끗 한번 쳐다보더니 “예 좋습니다.”하고 아양을 부리며 굽실거립니다. 나는 이와 같은 선원의 친절한 태도를 그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헤아려보니, 그는 나와 뼈를 녹일 정분이 있어서가 아니라, 인식 부족한 것이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가 불편을 말함과 동시에 될 수 있는 대로 사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거꾸로 명령하는 것을 볼 때, 아마도 배에 서투른 귀족이 모르고 올랐다가 그러는 것으로 짐작하고 상륙할 때 다소 선심을 쓰지 않을까 생각한 모양입니다. 그러니 내가 나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고의로 그를 속였다든지 일시적으로 어떤 수단을 쓴 것은 아닐지라도, 그는 나에게 여유가 없는 것을 모르고 헛물을 삼킨 것임에 우습기도 한 한편, 인간이라는 것은 모두가 속아 산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등실에는 그리 복잡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여수금융조합 김경용 군은 거문도 출장길이고, 김수옥, 백영우 군은 나와 같은 목적으로 손죽도행이어서 동반케 되었는데, 장난을 좋아하는 분들이라 나도 한 축 들어 잡담 겸하여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선원에게 술을 청하여 한잔 또 한잔하는 가운데 배는 어느덧 봇돌바다와 나로도를 지나 살 같이 달리고 있었습니다. 갑판 위로 나가보니 하늘은 맑고 바다는 잔잔하며 하얀 갈매기 떼가 훨훨 나르고, 반쯤 배가 부른 돛단배들이 한가히 오르내리니 정신의 유쾌함을 형용할 수 없었습니다. 배는 점점 넓은 바다로 들어서니 굽실거리기 시작하여, 나는 다시 선실로 돌아와서 죽은 듯이 누웠다가 홀연히 잠들었을 때, 뚜뚜 하는 기적소리에 놀라서 깨니, 일행은 실은 배는 오후 3시 손죽도 뱃머리에 5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우리를 내려놓은 여객선은 동행하던 김 군을 실은 채 갈대로 가버리고, 세 사람은 즉시 상주 이강설 군을 방문하고 상도(喪道)의 예를 올렸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고 영구 옆에서 잠자리를 펴고 있는 이 군은, 그동안 시탕(待湯)과 애통이 지극하였음이 초채한 그의 얼굴에 완연히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한눈에 평화로운 어촌인 듯합니다. 누렇게 익은 벼 이삭은 총재에게 절하듯이 고개를 숙이고 있고, 푸르디푸른 나뭇잎은 누룻누룻 아름다우니, 잠깐이라도 도시를 떠난 나는, 한가하기 그지없는 동시에 이곳에 와서야 비로써 금년의 가을도 이미 깊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마을이란 절해도도의 백여 호에 불과한 조그마한 어촌이지만, 산과 산의 빼어남과 풍경의 아름다움이, 요새 사람들이 입을 모아 찬미하는 이미 널리 알려진 명승지를 능가하고도 남음이 있겠습니다. 남으로 주산은 봉화산이요, 동으로 마제봉(馬蹄峯)이니, 말발굽 자국이 뚜렷이 있습니다. 서는 상사산(上司山=상각산)인바 봉우리의 기묘함이 한 폭의 그림이어서 무엇으로 형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만일 조물주가 금강산의 세포를 어디에 만들어놓고, 조선 땅의 강원도에 하나씩 돌씩 가져다가 1만 2천 봉을 채운 후에, 이 상사산을 마저 안고 가다가 늙은이 허리 아픔을 못 이겨, 그대로 이곳에 버려둔 것이 아닌가 합니다.

대양으로부터 울려오는 태산 같은 파도가 이산 아래 부딪쳤을 때의 소리는 여러 봉우리들의 고막을 울리고, 떨어지는 물방울은 구름같이 퍼지며, 바닷새들도 쌍쌍을 지어 나르니 어디에도 비할 수 없는

절경(絶勝)이라 아니 할 수 없습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깊은 바다요, 북으로는 멀리 고흥, 장흥, 강진, 영암, 해남 등지의 수많은 봉우리가 병풍처럼 늘어서 있습니다.

손죽도는 무명어촌(無名漁村)이 아닙니다. 지나간 역사를 들추어보면 삼천리강산에 전운(戰雲)이 무르녹던 임진왜란 5년 전(1587년 2월 20일), 남해안을 노략질하는 왜구들을 몰아내기 위하여, 녹도 만호 이대원 공이 전라좌수사 심암의 명령에 따라, 손대 앞 해상에 이르러 적과 마주쳤으나, 전라좌수사 심암이 얼마 전의 일로, 이대원의 공을 시기하여 약속을 어기고 원병을 보내주지 않아, 손죽도 앞 바다에서 종과부적으로 왜적과 싸우다가 수하 장졸들과 함께 장렬하게 전사한 곳입니다. 손죽도는 단순히 손죽도라고만 부르는 것이 아니라, 그 본명은 손대(損大)로써 손죽으로 이름을 고쳐 부르는 것은, 가장 짧은 역사를 가진 신식 이름이라고 합니다. 이 공이 전사하기 전날 밤에 방금 격전이 시작될 싸움터가 손대 앞바다라는 말을 듣고, 불길할 것을 각오하는 한편으로, 부하에게 혈서를 써주어 후사를 당부하였다 하니, 공의 두뇌가 얼마나 명석하였다는 것을 가히 엿볼 수 있고, 이미 전라좌수사로 임명되었었는데 첩지가 도착하기 전에 출병하여 모르고 전사했습니다.

손죽도 주민들이 공의 사당을 건립하고, 지금까지 1년에 두 차례 제향을 드린다고 하니, 천추(千秋)의 한(恨)을 남긴 그의 영의 유무는 막론하고, 춘풍추우(春風秋雨) 여러 백 년 동안 주민들의 지성은 실로 크다 하겠습니다. 나는 일행과 함께 복인(服人)의 인도로, 어느 집 깨끗한 방에서 하룻밤을 고이자고, 다음날 오전 10시 장례식에 참가하였습니다. 발인제를 마친 다음 운상을 하게 되었는데, 고흥으로부터 초빙된 직업 상부 끈들은 금으로 장식하여 찬란하기 그지없는 3층 꽃상여를 어깨에 메고, 여가리 넘चार 발을 맞추며, 꽃상여의 앞면은 1개의 가격이 오륙십 원에 달하는 꽃 목도리 수습 개와 만장과 조기 천여 폭이 바람결에 질서 없이 나부끼고, 뒤로는 내외 상인(喪人)과 복인(服人)을 비롯하여 호상(護喪)이 장사진(長蛇陣)으로 따랐습니다. 젊고 늙은 안 상인(여자 상인)들은 45인이 되나, 남자 상인이라고는 다만 이군(이강설) 한 사람뿐이라, 57세를 일기로 세상을 하직한 그의 부친을 위하여, 애통과 함께 자못 고독함을 느끼는 듯, 하였습니다.

소소형(唉唉兄)!

그런데 이 굉장한 상여 뒤를 따라가는 안 상인 중에는 이십 칠팔 세 되어 보이는 흉안의 젊은 부인이 있사운데 아무리 미를 구별치 못하는 나의 안목이라 할지언정 그야말로 절세의 미인이라는 것을 느꼈으며 애절 통절의 눈물이 앞을 가려 능히 걸음을 못 하고 간신히 상장을 의지하고 겨우 따르는바 망인을 사모하는 다른 사람의 눈물을 눈에서 나온다고 할진대 그가 흘리는 눈물은 구곡간장과 육천 마디를 짜여내는 액체 그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목메어 우는 그의 자태는 비 내리는 봄날 아침 한 떨기 꽃송이와도 같아서 더욱 아름답습니다. 장지는 봉화산 중턱으로서 상여는 도중 삼차의 노제를 지내고 산비탈 응달길을 거쳐 오후 세 시 반 목적지에 도착하였으나 그는 한결같은 울음을 울고 있으니 상관없는 호상객으로서도 기분은 침통하고 발길은 무거웠습니다. 진실로 슬퍼함이 도를 넘는 것을 본 나는 궁금하던 끝에 그는 망인의 따님도 아니요. 자부도 아니며 고인의 총애를 받은 평양 출생의 김 씨인 것을 알았습니다. 이 씨가 처음 경성에서 맞아 왔다하여 이 마을 사람들은 그를 서울댁이라 부르니 꽃같이 젊은 서울댁이 아버지 이상의 늙은이에게 시집을 오게 될 때는 남에게 말하지 못할 애처로운 사정이 없지 않았을 터이나 그것은 내 알 바 아니고서 다음과 같은 글을 읊었습니다.

碧海公子恨 海逝山獨立

青山寡婦愁 西風萬年秋

벽해 공자의 한은 바다 위 산이되어 홀로 떠있고
청산에 홀로된 여인의 시름 찬바람에 한이 없으라

나는 다시금 이 서울댁의 심경을 그려보았습니다. 그가 이곳에 오던 바로 이 씨와의 사이에 금년 7세의 사내아이가 있었으니 애초에 피치 못했던 설움이란 흐르는 세월과 한가지 떠내려 보내고 부지불식간에 올라오는 감정은 한갓 운명으로 돌리어 억제하며 백설이 만견곤할 때 방향 잃은 날짐승이 고목을 의지하듯 오로지 이 씨만을 하늘같이 바라고 그의 장수하기를 은근히 기원하였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 씨도 또한 그러한 정을 모르는 바 아니어서 이것에나 유일한 낙을 부치라는 듯이 그의 소생 어린아이에게 상당한 토지를 부여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씨는 다시 돌아오지 못할 영원한 길손이 되고 본즉 어린 것을 남겨두고 이제 다시 발길을 옮기려 하나 여자 신분으로 문제 중의 하나임과 아울러 새 밭에 피 같은 어린 것의 장래가 가히 없는 것이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초목과 더불어 썩으려니 그의 꽃다운 청춘이란 영구매장을 하는 것이매 간단한 눈물로 해결될 바 아니건만 앞으로 꽃피어 새 노래하고 달 밝아 기러기 울 때 전전반측 할 것을 생각하면 굶이쳐 솟아나는 설움을 어찌 금할 수 있으리까.

무덤 만드는 일이 다 되었기로 일행과 내려올 때는 나는 고인의 무덤을 한번 둘러보고 부질없이 새삼스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 사회 이 경제 조직 밑에서 일정한 궤도 위로 생을 운전하게 될 때는 돈! 돈! 돈! 이란 참으로 좋은 것으로 말한다면 밥도 옷도 좋거니와 가두에 즐비한 고루거각 창고와 곡식 금고의 황금문명의 이기등등이 모두다 좋은 것이 아님이 아니로되 이것은 살아있는 사람에게 필요하다 할 것이지 한번 인간에게 이탈되어 길이 잠들게 될 때에야 제아무리 천하의 역사인들 담고도 메고도 못 갈 것이니 무슨 일고의 가치가 있으리까?

그리고 유구한 우주의 역사에 비하여 인생이란 수사이어서 생을 유지하는 그날까지 먹고 입고 살면 그만일 것이건만 필요 이상의 소유를 한 알아라도 더 만들고 명예와 지위를 높이기 위하여 진정한 양심과 양심은 산 밖의 산에 걸어둔 후 거짓이란 탈로 단장하고 물고 차고 뜯고 등등 천태만상의 극을 연출하다가 심하면 귀중한 생명까지 내기하고 발악하게 되니 너무도 영리하지 못한 것이 인생이 아닌가 하며 뿐만 아니라 한 평 미만에 말없이 묻힌 이 씨로도 스스로 만족하던 전 궁내부주사에 많은 재력과 삼도대왕이란 별명이란 지금부터 길을 잃고 애꿎은 구름만 깊어 찾을 길 없으므로 나는 부질없이 장호단탄(長呼短歎)을 말지 않으며 음과 같은 옛사람의 글을 읊습니다.

空手來空手去 成墳墓人故去

世上事總浮雲 山寂寂月黃昏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니 옛 사람은 가고 무덤만 남았네
세상사 뜬구름만 같고 쓸쓸한 산위에 황혼달만 처량하네

- 【개】**
- 줄-멍-개 : 손죽리 마을 동쪽에 있는 해변으로 ‘줄을 매어놓은 개’란 뜻으로 지어진 말로 추정됨
 - 집-앞 : 손죽리 마을 앞의 해변
 - 큰-개 : 손죽도 최남단에 있는 해변
- 【고개】**
- 낸-너리-재 : 손죽리 마을에서 서쪽 평전으로 가는 넓은 고개
 - 큰-재 : 손죽리 마을에서 서쪽 깃대산으로 가는 고개
- 【골】**
- 가장-골 : 손죽리 마을 서쪽의 골짜기이며, 가장(假葬)골로 초분이나 돌무덤을 만들었던 가매장지
 - 물-래-골 : 손죽도 남쪽 중간에 있는 골짜기로 ‘물 + 내려온 + 골짜기’의 합성어
- 【곶】**
- 간대-곶 : 손죽리 마을에서 뱃머리 중심에 있는 곶으로 간대(빨랫줄 중간에 걸쳐놓은 막대)를 세운 것처럼 낭떠러지로 이루어져 붙여진 이름
 - 까막-코지 : 손죽리 마을 동북단의 지역으로 검은색을 띤 바위가 튀어나와 있어 붙인 이름
 - 낭-곶 : 손죽도의 최남단 절벽으로 낭떠러지 곶의 의미로 남곶으로 해석하기도 하며, 삼산면의 여러 지역에서 같은 이름이 보임
 - 댄-머리 : 손죽리 마을의 배가 닿는 곳을 이르는 말로 ‘배 + 댄 + 머리’의 뜻
 - 뚝-바-곶 : 손죽리 마을 서북단 지역으로 뚝바는 ‘뚝 + 바위’가 합성된 말로 자갈보다는 굵고 바위보다는 작은 돌들로 이루어진 해변을 말함. 마을에서는 처음 사람이 살던 곳에서 뚝바로 보여서 ‘뚝바’라 하였다고 함
 - 물래골-코지 : 손죽도 남쪽 중간의 물래곶에서 튀어나온 지역(곶)
- 【굴】**
- 반초섬-굴 : 손죽리 동북단의 반초섬 앞에 있는 바위 굴
- 【기미】**
- 보튼-기미 : 손죽도 여객선 선착장 북쪽 해변으로 보튼은 마른 형상이나 홀쭉한 것을 이르는 사투리(물이 보튼 논)
- 【너리】**
- 너리 : 넓고 평평한 바위, 너럭바위
- 굴이-지검-너리 : 손죽리 마을 동북쪽에 있는 너리
 - 큰-너븐-너리 : 손죽도 남단 서쪽에 있는 넓은 너리
 - 산-너리 : 손죽리 마을 서쪽에 있는 삼각산 동편 바닷가의 너리
 - 온-너리(애론) : 손죽도 서쪽 중앙에 있는 너리로 그곳에 접근하기가 어려워 ‘애론 온너리’라고도 함
 - 작은-너븐-너리 : 큰너븐너리 남쪽에 있는 너리
 - 편한-온-너리 : 애론 온너리 옆 지역의 너리 지역으로 접근하기가 편한 온너리



삼각산



장사공돌

- 【마을】**
- 지지미 : 손죽도의 중앙부 깃대봉 남쪽에 있는 지역으로 지지미는 참꽃(진달래)으로 화전을 부치던 곳이라는 뜻
- 【목】**
- 개-목아지 : 손죽도 남단 서쪽의 목
 - 마당-목 : 지지미에서 낭끝으로 가는 곳에 있는 목
 - 산청-목 : 손죽리 마을 동쪽으로 가는 곳의 목
- 【묘지】**
- 공동-묘지 : 손죽리 마을의 공동묘지로 댕머리 윗쪽
 - 이대원-장군-묘 : 손죽리 마을 서쪽 무구장터에 있던 묘로 최근에 이대원장군의 묘라고 하여 후손들과 함께 묘역을 정리함
- 【바위】**
- 깻-독-바 : 죽도 서쪽 해안 중앙에 있는 바위로 바위 주변의 돌들이 검은 돌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깻독은 검은 돌의 사투리 표현
 - 서들-바 : 손죽도 동북단 지역 큰 바위에 석질이 다른 돌들이 점점이 박혀있는 것
 - 지지미-서들-바 : 손죽도 남단 동쪽에 있는 서들 바위
 - 장사-공-돌 : 손죽리 마을 북서쪽 뚝바 끝에 있는 바위로 옛날 힘이 센 장사가 공돌(공기놀이를 하던 돌)로 가지고 놀았다는 전설이 전해옴
- 【밭】**
- 온엽이네-묵전 : 온엽이라는 사람의 밭이었던 곳으로 묵전은 묵혀놓은 밭을 이르는 말
- 【산】**
- 깃대-봉 : 손죽도의 최고봉으로 높이는 242m이며, 1896년경 일제가 지도 제작을 위한 측량 깃점 표시를 위해 산정에 기를 꽂은 이후에 지어진 이름
 - 봉화-산 : 조선시대에 왜적의 침입을 미리 알기 위해 전망이 좋은 산정에 설치한 요망소로 이를 주변에 알리기 위한 신호로 봉수를 이용함. 1789년에 발행된 고지도에도 손죽도는 봉수대가 아닌 요망소로 표기되어 있음
 - 삼각-산 : 손죽도 마을 앞 북서쪽에 있는 큰 바위 둘과 작은 바위 하나로 이루어진 산으로 큰 바위 두 개가 한 쌍의 다리모양으로 이루어져 상각산(相脚山)이라고 부름

- 복짓개-산-꼭지 : 손죽리 마을 뒷산으로 복짓개를 덮어놓은 듯한 모양의 산 정상

【선착장】

- 안-선착 : 큰바람이 불면 선박이 피항할 수 있도록 축조한 마을 앞의 선착장

【섬】

- 반초-섬 : 손죽도 북동쪽 댕머리 입구에 있는 작은 섬

【여】

- 낭-끝-여 : 손죽도 남단 서쪽 낭끝 부근에 있는 작은 여
- 성제-여 : 손죽도 남단 동쪽으로 있는 2개의 여로 '성제'는 형제의 지역말
- 큰-여 : 손죽도 북서쪽 끝에 있는 여

【작지】

- 진-짜지 : 손죽리 마을 앞 북서쪽에 있는 긴 자갈밭으로 이루어진 해변

【지역(곳)】

- 굴-바-남-데이 : 손죽도 서쪽 해안 중앙에 있는 굴바위 부근에 있는 남데이
- 날라리 : 힘든 길이 끝나고 길이 평평하여 날아갈 듯이 편히 길을 갈 수 있는 곳
- 낭끝-내려간디 : 손죽도 최남단 낭끝으로 내려가는 곳
- 독-보듬고-돈디 : 손죽도 동쪽 중앙부 해안으로 독(바위)을 보듬고(안고)서야 돌아갈 수 있는 곳
- 목넘-옆걸음 : 손죽도 동쪽 중앙부 해안에 있는 목넘어 지역으로 바윗길이 좁아서 정면으로 지나갈 수가 없어 옆걸음질로 가야 하는 곳
- 물-따죽 : 손죽리 마을 여객선 선착장 동쪽 위로 말 발자국 모양의 바위가 있어서 지어진 땅이름
- 빈지 : 손죽도 북서단에 있는 비탈진 절벽
- 새-삿-골-양지 : 손죽도 동남쪽 끝에 있는 새삿골의 양지
- 새-삿-골-음-산 : 손죽도 동남쪽 끝에 있는 새삿골의 음지쪽을 이르는 땅이름
- 서당-술-밭 : 손죽도에 서당이 있던 시절 서당 소유의 술밭으로 태풍이 불어오면 섬 동쪽의 큰 파도가 이곳을 넘어오자 서당 사람들이 이곳에다 소나무를 심어서 피해를 막았다는 이야기가 전해옴
- 손-잡고-돈디 : 손죽도 동쪽 중앙부 해안으로 손을 잡아주어야 건널 수 있는 험한 바위로 이루어진 해안
- 양아리 : 손죽도 서쪽 중하단부에 있는 지역으로 길이 두 갈래로 나누어지는 곳
- 진-걸음 : 손죽도 서쪽 중앙부해안에서 북쪽으로 길게 뻗은 긴 오솔길로 '긴+걸음'을 뜻함
- 처녀-배짚디 : 손죽도 중앙부 깃대봉에서 지지미로 가는 길목으로 옛날에 처녀들이 모여서 베를 짰다고 하는 곳
- 택-거리 : 손죽도 동쪽 해안에 있는 지역으로 바윗길이 험하여 턱을 바위에 걸고 양손을 더듬어서 지나갈 수 있는 곳

- 【지역(너머)】
- 목-넘 : 손죽도 동쪽 중앙부 해안으로 마을에서 고개목을 넘어서면 있는 지역
 - 상산-너메 : 손죽리 마을 북서쪽에 있는 삼각산 너머의 지역
 - 선애네-밭-넘 : 손죽도 남단 동쪽 지역으로 오래전 이곳에 선애라는 사람의 밭이 있었다고 함
- 【지역(물)⁴⁷⁾】
- 굴-바-물 : 손죽도 서쪽 해안 중앙부에 있는 굴바위 옆에 있는 작은 해변
 - 남-물 : 손죽도 북서단 끝에 있는 작은 해변
 - 낭-끝-물 : 손죽도 남단 낭끝에 있는 작은 해변
 - 뚝-바-난-물 : 손죽도 마을 앞 삼각산 동쪽 아래의 뚝바 부근에 있는 작은 해변
 - 이미 : 손죽도 동북단 지역으로 이미는 어떤 지역의 앞이라는 뜻으로 배의 앞머리를 이물, 뒤쪽을 고물이라고 하는데 이미는 어떤 지역의 앞이라는 뜻
 - 이미-물 : 손죽도 동북단 지역 이미에 있는 작은 해변
- 【지역(밭)】
- 가장-골-밭 : 손죽마을 서쪽 가장골 아래 지역
 - 덩-배-밭 : 손죽도 서쪽 중앙부에 깨독바와 온너리 사이에 있는 바위로 된 해안으로 배를 대던 곳이어서 붙은 이름
 - 띠-밭-밭 : 손죽마을 서쪽에 있는 띠밭(잔디) 아래
 - 순열네-밭-밭 : 손죽도 서쪽 해안 진걸음에 있는 지역
- 【지역(안)】
- 뚝바-구석 : 손죽마을 북서쪽에 있는 뚝바의 안쪽
- 【터】
- 광대-터 : 손죽도 서쪽 해안의 지역
 - 고-부-양-터 : 손죽도에 처음 입도 했다는 사람들의 집터(제주도 사람의 시초가 되었다는 고부양 세 성씨의 탄생 설화가 깃든 제주 삼성혈 유적과 같은 뜻)
 - 무구-장-터 : 임진왜란 때 왜적과 싸우다 순직한 군인들의 무덤자리로 이대원 장군의 무덤이었다는 설이 있으며, 무구장은 주인 없는 무덤을 이르는 말

47) 밀물이 되면 없어지는 작은 해변을 이 지역에서는 ‘물’이라고 한다.

나. 손죽도의 설화와 민요

1) 애도가

이대원 장군이 죽자 해안 지방의 아녀자들은 물론 기생들까지도 평평 울면서 누가 지은 줄도 모르는 「애도가」를 한없이 불렀다고 한다. 「애도가」는 현재 노랫말만 전할 뿐 더 이상 불리지 않고 있다.

咄憐哉 / 아, 슬프다!

鹿島萬戶李大源 / 녹도 만호 이대원 장군이여

端只與國爲忠臣 / 오직 나라 위한 충신이셨네

船入海洋兮 / 배는 바다 속으로 가라앉고

虜進主將退 / 장수들 물러가고 포로가 되었어도

百萬陣中空張拳 / 백만 적진 가운데서도 홀로 맨주먹을 휘둘렀다네

2) 손죽도 화전(花煎)놀이

여수 지역에서는 봄에 여성들이 화전을 부쳐 먹으며 노는 화전놀이를 하는데, 주로 삼월 삼짇날에 이뤄졌다. 음력 3월 3일을 삼짇날 혹은 상사일(上巳日), 중삼일(重三日)이라고 한다. 이날은 강남으로 갔던 제비가 돌아오고, 진달래가 만발하며 나비가 날아들기 때문에 나쁜 기운을 버리는(除厄) 의미로 산이나 들로 나가 ‘제비맞이’, ‘화전 즐기기’ 등으로 하루를 즐긴다.

여성들은 산에 만발한 진달래꽃을 따서 전을 지지며 음식을 장만했고, 이날 머리를 감으면 머리카락에 윤기가 돈다고 하여 들에 나가 음식을 준비하면서, 도랑에 흐르는 물로 머리를 감기도 하였다.

손죽도 지지미재에서는 춘삼월 봄꽃들이 필 때, 버무른 찹쌀가루를 위에 진달래 꽃잎을 올리고 달구어진 쇠판에 기름을 둘러 지진 음식, 즉 전을 만들어 먹으며 노래와 춤추며 놀았던 봄맞이 놀이가 해마다 열렸다.

남자들이 풍물판을 벌이면 마을의 여성들이 산등성에 모여서 즐거운 봄놀이를 하였다. 화전놀이 날이 정해지면 중노년기의 여성들이 중심이 되어 반별로 곡식을 거두어 술을 담그고, 젊은 여성들이 집집마다 맛있는 점심을 준비하여 함지에 담아 이고 화전놀이가 터로 올라갔다.

한때는 삼청목을 지나서 몰따죽(마제봉, 馬製奉)에서 화전놀이가 일시적으로 있었으나, 사람이 다치는 일이 발생하여 다시 지지미재로 옮겨서 화전놀이가 이뤄졌다. 화전놀이 다음 날도



화전놀이(1960년대) 48)



화전놀이

웃 사장과 아랫 사장에서 계속되어 3일씩 열릴 때도 많았다. 나이가 많아 지지미재에 오를 수 없는 노인들은 마을 사장에서 화전놀이를 할 때 지팡이를 짚고 나와 구경도 하며, 함께 즐겼다. 광복 전 손죽도의 중선배 사업이 번성했을 때는 고흥, 나라도, 내밭도 등에서 장사꾼들이 손죽도 화전놀이에 맞추어 들어와 지지미재에서 놀 때, 옛장수와 보따리 장사들이 둘러서서 장사판이 벌어지기도 했다. 지지미재의 화전놀이 터에 쌓아 놓은 돌벽이 있는데, 이는 남쪽에서 불어오는 마파람을 막아 농사 피해를 줄이고자 쌓은 방풍담의 기능과 화전놀이를 할 때 바람막이 겸 놀이를 구경하는 것은 좋은 객석이기도 했다.

화전놀이를 할 때 부르던 노래들의 뒷소리로는 “제화(諸花) 좋소 제(諸) 제화(諸花)가 좋음도 좋소. 명년(明年) 춘삼월에도 화전놀이를 합시다.”를 가장 많이 불렀다. 하지만, 이것이 지루하면 진도 아리랑으로 리듬에 변화를 주는데, 그때의 뒷소리는 “아리아리랑 스리스리랑 아라리가 낫네. 아리랑 응응응 아라리가 낫네.”였다.

노래를 잠시 쉬고 좀 더 빠른 몸짓으로만 춤을 추는 베푼(법고, 法鼓)놀이가 진행될 때는 앞치배들이 자신의 악기인 북과 장고치는 솜씨를 뽐내기도 하며, 모두 신명나게 놀이판에 어울린다. 곧 청춘가로 이어지는데, 뒷소리는 “얼씨구 절씨구 지화자 좋네. 얼씨구나 절씨구” 또는 “얼씨구나, 좋네. 저절씨구, 아니, 놀지는 못하겠네.”가 쓰인다. 뿐만 아니라 ‘강강술래’, ‘궤지나 칭칭나네’와 같은 우리 민요로 이어져 여성들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하기도 했다.

다음의 앞소리들은 ‘제화 좋소’나, ‘진도 아리랑’을 비롯해 다른 민요에도 리듬을 맞추어 응용할 수 있다. ‘강강술래’와 ‘궤지나 칭칭나네’는 짧은 가사로, ‘진도 아리랑’과 ‘제화 좋소’는 중간 정도의 가사이고, ‘청춘가’는 길게 이어가는 가사였다. 이 가운데 ‘강강술래’는 느린 가락, 중간 가락, 짧은 가락 등으로 두루 활용될 수 있어서 다양한 변화가 가능했다.⁴⁹⁾

48) 『손죽향토지』

49) 김광백 편저, 『손죽향토지』, 길기획, 1999와 2012년 5월 화전놀이 재현 행사에서 박봉희 어른의 증언과 채록을 바탕으로 함.

- 우리가 살면 몇 백 년 살까
잘이나 살면 한 백 년 산다.
- 무정한 세월아 오고 가지를 말아라.
아까운 내 청춘 다 늙어 간다.
- 각시야 잡자자. 방 쓸어 올려라.
밤중에 셋별이 산 넘어 간다.
- 널 보고 날 봐라 널 따라 살까?
연분이 좋아서 널 따라 산다.
- 연분이 좋아서 널 따라 살까?
본처 말 들으려고 널 따라 산다.
- 울 넘어 담 넘어 넘 세워 놓고
호박의 넝쿨로 전화를 건다.
- 끼니도 굶고서 물애질 하여
못된 낭군 술값으로 다들어 간다.
- 나로도 판장에 전기불 반짝
우리 오빠 팔뚝에 금시계가 반짝
- 십오야 밝은 달은 구름 속에 놓고
하늘같은 우리 낭군 내품 안에서 논다.
- 청천 하늘엔 잔별도 많고
우리네 가슴 속엔 수심도 많다.
- 이 아래 간 배야 소리말고 가거라.
대쪽같은 곶은 마음 잠시잠깐 변한다.
- 간다 못 간다 얼마나 울었냐.
정거장 마당이 한강수가 되었다.
- 저 달아 보았느냐 본대로 일러라.
사생결단 하려고 님 찾아 간다.
- 좁느냐 덥느냐 내 곁에 누어라.
베개가 앞으면 내 팔을 비어라.
- 문경 세재는 몇 구비 인가?
구부야 구부구부가 눈물이로구나.
- 이 아래 갱변에 꿀 까는 처녀야
언제나 다 깨고 내 사랑이 될래.
- 앞산에 송쿠야 물이나 올라라.
정든 님 데리고 산보나 가세.
- 놀자 좋다 젊어서 놀자.
늙고 병들면 내가 못 논단다.
- 아니냐 늙으라고 맹세를 했더니
철따라 세월따라 다 늙어진다.

- 저기 가는 저 큰 애기 옆으러나지거라.
일으켜 준 채 하고 보두마나 보자.
- 남남이 만나서 부부라 치고
수 십 년 배씩 없이 내 배를 탔네.
- 일기가 좋아서 산 구경 갔더니
무지한 놈 만나서 돌베개를 비었네.
- 덩굴 밑에 앉은 꿩은 총이 울까 염려
홀로 사는 이 내 몸은 도둑들까 염려
- 말은 가자고 네 굶을 치는데,
우리 님은 나를 잡고 놓을 줄 모르네.
- 하늘에 해 없는 건 비구름 탓이요.
이 몸에 병든 것은 님 없는 탓이다.
- 신작로 길가에 졸모를 심으니
순사야 서기가 손뼉을 친다.
- 책상에 시계는 열두시를 가는데,
갈 손님은 가고요 잘 손님 잡시다.
- 지우리 큰 산 밑에 오리내린 저 웅선
우리 낭군 신고서 오리내리 한다.
- 오르락 내리락 잔기침 소리
자다가 들어도 정든 님 소리네.
- 우리 님 반듯이 빗었던 머리
동남풍 분 바람에 산발이 되었네.
- 님 보고 싶으면 사진을 보고
말소리 들으려면 전화를 건다.
- 시어머니 죽었다고 춤을 다 뺐더니
보리방아 물 고르니 생각이 난다.
- 시아버지 죽었다고 춤을 다 뺐더니
갱변에 다닐 적에 짚신 생각난다.
- 시아재 죽었다고 춤을 다 뺐더니
청솔깽이 땀 적에 생각이 난다.
- 시누이 죽었다고 춤을 다 뺐더니
김통에 손 널 적에 생각이 난다.
- 바람아 강풍아 석달 열흘만 불어라.
우리 낭군 고기잡이 못 떠나간다.
- 강남갔던 예비들도 봄이 오면 오건만
한 번가신 우리 님은 어찌하여 못 온가?
- 서산에 지는 해는 지고 싶어 지는가?
날 버리고 가는 님은 가고 싶어 가는가?

- 뱅어배 선장아 돈자랑 말아라.
우리 낭군 내일 모래 중선배 간단다.
- 대구리배 선장아 돈자랑 말아라.
우리 낭군 내일 모래 무역선 간단다.
- 쓸쓸한 이 세상 외로운 이 내몸
누구를 믿고서 한 백 년 살거나.
- 사꾸라 꽃피면 오신다던 님이
열매가 열려도 아니나 온다.
- 정든 님 오셨는데, 인사를 못해
행주치마 입에 물고 입만 방긋
- 알뜰히 살뜰히 기다리던 님아
얼마나 보면은 싫토록 볼까?
- 신작로 복판에 술 때운 사람아
정 떨어진 것은 때울 수가 없나.
- 저 달은 고와서 산 넘어 가는데,
이내 나는 언제나 님 마중 갈거나.

- 님 떠난 방에는 사진만 남고
배 떠난 부두에는 연기만 남았네.
- 말 못한 술 담배는 내 속을 아는데,
말 잘하는 당신은 내 속을 모른다.
- 거문도 큰 산에 실안개가 걸리면
손죽도 부삽엔 복가리 속이 걸리네.
- 삼각산 물랑에 비오나 마나
어린 낭군 품안에 잠자나 마나
- 님 보고 싶으면 사진을 보고
말소리 듣고 싶으면 전화를 건다.
- 신식 연애는 술방을 연앤데,
바람만 불어도 뚝 떨어진다.
- 오람 씨 장가는 후년에 가고,
검영소 팔아서 날 여워 주소.
- 호박은 늙어도 단맛이 있는데,
사람은 늙어도 단맛이 없네.

청춘가로 쓰인 가사 몇 대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으나, 위의 가사 가운데 두 줄로 된 것들도 청춘가로 활용할 수 있으며, 만가(輓歌) 중에서도 가져다 쓸 수 있다.

- 꽃과 같이 고운님아 가지가지 뺨은 정은
뿌리같이 심어 놓고
산이 막혀 못 오시나 물이 막혀 못 오시나
- 긴 베개로 한 몸되어 웃음 웃고 잠잘 때는
천년이나 만년이나 이별없이 살자더니
영영 이별이 웬 말이나?
- 광폭 넓은 손수건에 사랑 애(愛) 자 수를 놓아
님 오시면 드리려고 깊은 곳에 두었더니
일시 이별이 웬 말이나?

- 새벽 서리 찬바람에 울고 가는 저 기력아
울었으면 너 울었지 잠든 나를 왜 깨우나?
- 꿈아 꿈아 무정한 꿈아 잠든 나를 깨지 말아라.
생시에 못 본 정든 님을 꿈 속에서나 보잖더니
무정한 잠이 깨고 나니 모든 것이 허사로다.
- 새야 새야 파랑새야 녹두밭에 앉지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수 울고 간다.
- 갈까 보다 갈까 보다 님을 따라 갈까 보다
천리라도 따라가고 만리라도 따라가지.

춘삼월 화전놀이

춘삼월 봄맞이 화전노리 가세.
사시사철 산으로 들로 바다로
정신없이 살아오신 우리네 어머님들
이날만은 기쁨이요 행복일세.

오늘이 온 마을 잔치요 경사라네.
이날만은 여자에 날이요 날일세.
남자들은 모두가 집안 일 돌보와주고
집집마다 정성껏 맛있게 음식장만 하였네.

할머니 어머님 모두 모두가
흰치마 흰저고리 차려입고
머리에는 흰수건 동여매고
모두 모두 사장 터에 모였네.

장구치고 북치고 앞소리 뒷소리 마저가며
소리높여 불러가며 춤추네
제화좋소 제 제화가좋소 하고 줄서가며
하얀줄 이어 춤추고 노래하며가네.

어린이들도 즐거워서 뒷따라가네.
갓바른 지지미재까지 힘들지 않게 가는구나.
지지미재 오르고 올라 춤추고 노래하며,
일년내내 놀지 못한 한을 풀려고 하는가봐.
할머니 어머니 젊은 여인 모두 함께
어울러져 신이나 흥겹게 잘들도 노네.
어린이들도 뽀뽀뽀아 먹고 제기차고
즐겁게도 잘들도 노는구나.

맛있는 음식 삼삼오오 가족끼리
이웃끼리 즐겁게 먹네.
참으로 춘삼월 화전놀이
아름답고 아름다워라.
그때 그 기쁨 그 모습들 모-두다
어데 갔나 그리웁고 그림구나.
세월을 원망하라 시대를 원망하라.
그때 그 시절 그리운 사람들 간데없고,
화전놀이 전통 끊긴지 오래일세.
이 모-두가 손죽도 여인들의 화전놀이일세.
이것이 토속적인
손죽도 전통 화전놀이 문화라네.

산아 산아 봉화산아⁵⁰⁾

지지미 제 푸른 광야
잔디 위에 모여
춘삼월 화전놀이 축제였네.
집집마다 가족마다 모두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워
거운 한마당 놀이라네.

산아 산아 봉화산아
해마다 춘삼월이면
봉화산제에서 너를 안고
봉화가 붉게 타오른 것같이
화전놀이 불꽃이 활활
타오르지 않겠느냐?

산아 산아 봉화산아
그때 그 시절 남녀 노소
장구치고 북치고
춤추고 노래하고
즐겁고 행복하였던
그때 그 화기애애한
시절 다들 어데갔나?
그아 름다웠던 모습들을
너는 지켜보고 알리라.
산아 산아 봉화산아
말 좀 해다오.

50) 2012년 5월 5일, 화전놀이 재현 행사에서 박봉희 어른이 낭독한 자료임.

다. 손죽도의 음식문화



개망초나물



가사리해초밥



툃나물

손죽도 주민들이 주로 먹었던 음식은 보리, 고구마, 쌀 등이었다. 그러나 쌀이 거의 나지 않는 손죽도의 특성상 고기잡으로 서해안으로 나가서 돌아올 때 보리나 쌀 등을 사왔다. 잡곡으로는 조와 수수, 콩 등을 먹었으며, 기타 부식으로 인근 바다에서 나는 해초류와 조개류, 어류를 먹었다.

육고기는 1년 중 2~3번 정도 명절이나 배가 출항할 때 고사를 지내기 위한 행사에서 먹을 수 있었으며, 고사를 지내기 위한 행사 시 동네 사람들과 고기를 나누어 먹었다고 한다. 식수는 6개의 샘이 있었다고 하며, 대표적으로 중천샘, 건너편샘(건너편 마을), 엉턱샘(현재 바다에 잠겨버렸음), 새터샘(학교 위), 우데미샘(손죽도 김영진씨 덕 입구에 있었으나 현재는 매립됨), 윗사당샘(윗사당 입구) 등이다.

해초류는 인근 손죽열도에서 나는 가사리국, 물국, 물무침, 짐뒹음, 늑대이뒹곰, 굴통국, 모래밭조개국, 미역, 우무, 툃, 다시마, 곤프, 갈파래, 산파래, 도배이, 청각, 참가사리, 나발추, 진주리 등이었고, 조개류와 어류는 다투리고동, 명지고동, 배말, 군뵈, 굴, 전복, 꾸죽, 보찰, 굴멍이(군소), 실기, 돌발기, 반장기, 민물기, 새단추, 밤생이, 찢대, 주왕, 낚지, 해삼, 문어, 꼬장어, 참장어, 붕장어, 노래미, 검철구, 독실매, 장고기, 농어, 삼치, 갈치, 뱀어, 감숭어, 도미, 상사리, 쥐고기, 능생이, 복쟁이, 모래무지, 도다리, 광어, 빨락, 멸치, 송어, 뿔어, 콩치, 부실이, 조기, 고등어, 감숭어 등을 먹었다.

산채류는 고사리, 도라지, 개나리부리, 원추리잎, 돈나물, 취나물, 엉겅퀴(한가쿠), 더덕, 쑥, 달룽개, 개망초 등을 요리하여 먹었다. 이 외에도 산에서 나는 으름, 정금, 맹감, 산딸기, 동백, 둔북 등 나무 열매를 계절에 따라 별미로 먹었다.

손죽도 사람들은 4~6월 역만도에서 미역을 채취하여 건조하여 가공 판매하는데 손죽도 미역은 부드럽지만 역만도의 미역은 약간 거칠다고 한다.⁴⁷⁾ 또한 마늘공동체 소득작물로 1960~1970년대에 마늘을 재배하여 판매하거나 물물 교환하였다고 한다. 손죽도의 마늘은 해풍을 이겨낸 것으로 수분이 적고 보관기간이 길며 달짝지근한 맛이 강하다고 한다.⁴⁸⁾



항아리

손죽도에서는 조리도구가 약간 특이한데 가정의 가세에 따라 돌절구가 각기 1개, 2개, 3개씩 있었다. 바깥이나 뒷켠에 솔의 크기와 솔의 개수가 다른 것을 볼 수 있었다. 또 손죽도의 장독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항아리 역시 여러 섬과 차별화되었다. 보통 식초 항아리로 많이 이용되었으며,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부터 사용된 항아리로 전라도 영암에서 생산한 것을 보부상이 배에 싣고 섬을 돌며 판매 및 물물교환하였다고 한다. 다만 안타까운 점은 당시 보부상과 물물교환할 때 삼산면의 보물들이 반출되어 귀중한 자료들이 소실되었다고 한다.



돌김

손죽도에서는 주로 갯가에서 미역이나 파래, 툇 등을 채취하여 소득원으로 삼거나 반찬으로 활용했다. 설에는 떡국 대신 쌀밥을 먹었고, 툇밥은 흥년에 대용식으로 먹었으며, 추석에는 송편 대신 수수밥을 만들어 먹었다. 특별하게 마을 잔치나 명절, 만선했을 때는 축하의 의미로 소나 돼지도 잡아 마을 잔치를 하였다.

47) 박기홍 씨(65세) 이야기 중에서

48) 박소화 씨(76세) 이야기 중에서

라. 손죽도의 신앙

1) 이대원 장군 숭모제(崇慕祭)

마을 공동 제의의 이름은 ‘숭모제’이나, 마을 사람들은 이대원 장군의 당제를 지낸다고 하며, 제의 장소는 마을의 중앙에 위치한 충렬사이다.

처음에는 초가집이었으나, 1983년 2차로 복원하였고, 1987년 4차 중수하여 현재 건물에 이르고 있다. 충렬사 내부에는 이대원 장군 영정과 ‘병조판서 이공대원 장군 신위(兵曹判書李公大源將軍神位)’가 모셔져 있으며, 교지가 있다.

제사는 음력 3월 3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지낸다. 예전에는 음력 3월 3일과 1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숭모제를 지내고, 선달 그믐날 당제를 지냈으나, 현재는 3월 1회로 통합하였다. 예전에는 생기 복덕을 보아 마땅한 사람이 제관을 담당하였으나, 요즘은 이장이 맡아서 한다. 제관을 맡은 사람은 초상집이나 출산한 집에 갈 수 없고, 개고기 등을 먹지 않아야 하며, 이웃과 싸움을 해서도 안 된다. 제사 3일 전부터 화장실에 가는 신발을 따로 두고 부부 관계도 금하며, 사당과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금줄을 치고 황토를 깬다.

제물은 생선류, 과일류, 메, 국, 찬, 어포, 식혜, 술 등이며, 마을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음복할 때에는 제상에 올렸던 음식과 돼지머리, 닭고기 등 육류를 따로 준비하였다가 나누어 먹는다.

제물은 이대원 장군뿐만 아니라, 큰 양판에다 메를 가득 담고 수저 여러 개를 꽂아서 당시 수십 명의 부하 병졸들의 밥과 국도 함께 마련하여 제상에 올린다. 예전에는 제사에 필요한 비용을 집집마다 거뒀으나, 이후 마을 공동 기금과 여수시의 보조금으로 운영한다.

축원 내용은 “이대원 장군님의 충효를 높이 공경하며, 수하 병졸들의 충성심을 높이 찬양합니다. 많이 운감하시고 마을과 나라의 액운을 막아 농사도 잘 되고 바다에서 무사히 고기잡이도 잘 되도록 도와주십시오.”이다.

제의 순서는 유교식 절차와 같은데, 제물 진설, 분향, 재배, 헌작, 축원, 재배, 헌식의 순이다. 제가 끝나면 바닷가로 가 종이에 밥과 돈을 써서 바다에 던지는 헌식을 한다. 이대원 장군이 바다에서 한(恨)을 가지고 죽었으므로 그 한을 풀어주고 음식으로 달래기 위하여 헌식을 한다고 한다. 부정이 없는 사람은 충렬사 또는 노인당에 와서 음복을 한다.

마을 사람들은 이대원 장군에 대한 믿음이 아주 강하다. 사람들은 “이대원장군은 이순신 장군 못지않게 훌륭한 장수다. 바다에 나가 전사한 한을 가진 장수이므로 그 한을 풀어주기 위해 제를 지낸다.”라고 말하고 있다.



송모제



송모제 헌식

또한 마을 사람들은 송모제가 400여 년 넘게 지내온 전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이대원 장군에 대한 공경심이 크다. 따라서 마을의 중요한 모임이나 회의는 사당 앞에서 했고, 외지에서 사망하여 시신이 손죽도로 오거나 유골이 올 때는 사당 앞길을 피해 뒷길을 이용하여 장지로 갔다.⁴⁹⁾

2) 마을제(里祭)와 매산제(埋山祭)

선달그믐날에는 매귀(埋鬼)굿 끈들과 제주(祭主)는 심신을 깨끗이 하기 위해 목욕하고, 풍물 복장과 한복을 입고 옷사장 나무 밑에서 마을 동제를 올리면서 매구굿을 일으킨다.

마을 제사를 맡은 사람은 금줄을 치고 문 주변에 황토를 뿌리는 등 부정을 피하며 청결을 지키고자 하였다. 옷 사장 나무와 아래 사장의 이대원 장군 사당 주변이 마을 제사의 금줄 장소로, 금줄은 부정한 사람의 출입과 잡귀를 막기 위해 원 새끼줄을 꼬아서 백지를 끼운다.

굿을 치고 삼청목으로 올라가서 30분 정도 굿놀이를 하는 동안 유사(有司) 집에서 메를 지어 제물을 함지에 이고 올라오면 산신제를 지내는데, 하늘과 땅, 즉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인 산신과 마을 토지신의 상징인 옷 사장 나무에서 제를 올린다. 마을의 재앙을 물리치고 풍어와 풍년을 기원하며 특히, 매산제에서는 모기, 벼룩, 파리 등의 해충에게 소거문도, 평도, 광도, 모기섬과 같은 섬들이 살기 좋으니 그곳으로 가도록 명령하고, 불로 모두 태우고 묻는 의식이었다.

49) 여수시·조선대학교박물관, 『여수시의 문화유적』, 디자인아트, 2000, 527쪽.

돌아오는 길에 마을 건너편에 있는 공동 우물에서 샘물이 잘 나오도록 샘굿을 치고 내려와 굿물을 보관할 곳에 와서 굿을 끝낸다.

정월 초이튿날부터 보름까지 풍물패들이 굿을 치고 마을을 돌면서 우물과 집에 들어가 악귀를 물어버리는 ‘매구굿’을 친다. 앞치배 가운데 꿩과리를 든 상쇠잡이는 상모가 달린 전립을 머리에 쓰고, 징, 장구, 북, 소고를 잡은 매구꾼들은 고깔모자를 쓰며, 어깨에는 대각선으로 엇갈리게 3색 띠를 매었다.

매구굿의 가장 앞에는 세로 1자, 가로 2자 정도의 남색 천에 붉은 색으로 ‘영(令)’자를 쓴 영기(令旗)를 든 사람은 굿을 칠 집을 정하였고, 세 번씩 긴 나발로 ‘뛰’하고 울려 매구굿의 시작과 마무리를 지시하는 영소수(令簫手), 쇠 등의 앞치배, 맨 끝에 솃포수와 암포수 순서로 이동하였다.

총으로 잡귀를 몰아내고 재미있는 말과 몸짓을 하며 허름한 옷을 입고 깃 달린 큰 모자를 등에 걸친 큰 포수(대포수 또는 솃포수)와 작은 포수(암포수)는 각각 포수옷과 여성 옷차림을 입고 함께 매구패를 이룬다.

마을을 돌다가 우물에 이르면 샘굿이 시작된다. 상쇠잡이가 “물 주소 물 주소 샘 각시 물 주소.” 또는 “솃나소(솃아 나소) 솃나소 팡팡 솃나소.”라고 선창하면서 꿩과리를 치면 앞치배와 뒤치배 모두 따라서 외쳤다. 영기수가 미리 굿을 쳐주기를 희망하는 집을 파악하여 순서를 정하여 어느 집에 이르면 대문 밖에서 문굿부터 시작한다.

상쇠가 “쥘 쥘 문여소”를 선창하면 모두 따라하며 굿을 치는데, 이때 주인은 돈을 달아주면서 매구패가 집으로 들어올 것을 권한다. 집주인은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마루에 성주상을, 부엌에는 부엌신인 조왕신에게 상을 차려 쌀, 돈, 술, 안주, 촛불을 올려놓는다. 마당굿을 할 때는 두 개의 영기를 서로 기대어 세워 놓는다. 마당굿에 이어 마루에 올라가서 성주굿과 큰방굿을 한 다음 부엌으로 가서 조왕굿을 한다. 마지막으로 집 뒤편에서 동·서·남·북·중앙을 지배하는 오방신 굿을 함으로써 집안 모든 곳의 잡귀를 몰아내고 복을 비는데, 집안에서 이뤄지는 굿에 쓰이는 선창은 “영복을 불러 드



손죽도 매구

리고 잡귀 잡신을 몰아내세.”였다.

앞치배들이 다음 집으로 떠나면 포수들이 남아서 새를 모는 소리 ‘우여’를 외치며 나무로 만든 총을 든 솃포수가 집안을 휘젓고 다니면서 온갖 재담과 몸짓으로 사람들을 웃겼고, 이때 격려금이 나오면 포수들의 몫이었다.

매구꾼들이 잡귀를 몰아내고 복을 빌어준 다음 술과 음식을 나누어 먹고 성주상과 조왕상에 올랐던 돈과 곡물을 쟁겼다. 굿을 치고 복을 빌어준 후 돈과 곡물을 얻는 걸립(乞粒)은 마을 공동 기금이 되어 복지에 쓰였다.

마을 집들의 매구굿이 끝나면 풍물패는 마을 아래 바닷가로 와서 ‘걸’ 또는 ‘거리(去禮)’를 함으로써 마을굿을 끝낸다. 거리가 끝나야만 출어를 할 수 있었고, 이후부터 정월보름까지는 풍물을 치지 않았다.

논밭에서 일하다가 들밥을 먹기 전에 약간의 음식을 떼어 던져 잡귀에게 음식을 베푸는 ‘퇴(退)’와 같은 의미로, 바닷가에서 용왕신께 음식을 던지면서 풍어와 해조류의 풍년을 빌었기 때문에 ‘헌식’이라고도 하였는데, 거리굿 또는 헌식굿이 매구굿의 끝을 장식했다.

매구굿이 끝나면 솃포수의 모자를 빼앗아 영기 꼭대기에 걸어 올리는데, 이는 포수의 역할이 끝났음과 마을굿 과정에서 잡귀를 몰아내기 위해 노력한 포수에게 물어있을 수 있는 약귀를 없앤다는 점, 그리고 잡귀를 다 몰아냈으니 포수가 필요 없다는 뜻에서 포수의 목을 잘라 수장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솃포수의 모자를 벗기려고 할 때, 솃포수는 끝까지 모자를 뺏기지 않으려고 함으로써 그 실랑이가 마지막까지 마을 사람들에게 웃음을 제공하였다.

3) 중선배 오색 풍어기 달기와 봉기(奉旗)놀이

광복 직전까지 손죽도에는 안강망이라고 하는 중선배가 많아 약 300세대의 마을에 55척이나 되었다. 어업이 주요 산업이었던 손죽도는 중선배의 선주와 선원, 그들의 가족과 선주집마다 부리던 육지에서 온 하

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다. 따라서 중선배와 관련된 행사는 마을 전체의 행사와 같았다.

선달그믐날이 되면 이른 새벽부터 경쟁적으로 선주집과 중선배에 풍년 오색기를 설치한다. 배 이름을 새긴 기(旗)와 다섯 가지 색깔의 천으로 만들어 늘어뜨린 풍년 오색기를 대나무 위아래로 달아 배의 앞 돛대와 선주집 중앙 기둥에 묶어 올렸다.

선원들은 낮에 선주집에 모여 만선하여 으뜸하는 것을 상징하는 봉기 두 틀을 만들어 하나는 선주집의 담벽을 이용하여 세우고, 다른 하나는 중선배에서 고사를 지낼 때 가져가서 배 앞에 세웠다.



오색 풍어기



오색 풍어기

중선배에는 팥과리, 징, 북, 장구, 소고 등의 굿물을 부수 장비로 가지고 있었으며, 선달 그믐날 오후가 되면 배를 깨끗이 청소하고 선주집에서 만든 오색 풍어기와 봉기를 앞에 들고 굿을 치면서 선창에 있는 배로 내려갔다.

배에 제물을 차려놓고 고사를 지내 풍어와 만선을 기원하고, 안녕을 빌었으며, 3일 간 등불을 켜서 배 주위를 밝혔다. 고사가 끝나고 선주집으로 되돌아오는 길에 굿을 치고 다음과 같은 앞소리와 뒷소리를 되받아서 노래하며 흥겨운 춤을 추는 길굿놀이는 온 마을을 축제의 장으로 만들었다.

우리 배 사공은 신수가 좋아 연평바다에 도장원(都壯元)했네. 헤이 야아 졸네해.
 도장원했네. 도장원했어. 연평바다에 도장원 했네.
 주인네 마누라 술등이고 발판머리에 궁둥 춤춘다.
 갈쿠섬 뺨닥(비탈)에 들어온 조기 우리 배 그물로 다 들어온다.
 주인님 마누라 인심이 좋아 막내딸 키워서 하장놈 주었네.
 흥양 바닥서 출물만 하더니 칠산 연평서 도장원했네.
 연평바다에 널린 조기 우리 배 중간에 다 잡아드린다.
 뒷소리 : 에 헤이, 헤야아, 헤야 헤 에 헤이 야.

마을 사람들이 집밖에 나와 구경하거나 함께 참여하였으며, 이렇게 설치한 오색 풍어와 봉기는 동리의 매구굿이 끝나는 날 내렸다.



오색풍어기를 맞이 하는 주민들

4) 밤굿 가면놀이

정월 초순 매구굿이 시작되는 날부터 마당이 넓은 집을 골라 돌아가며 마지막 굿판을 벌였다. 마지막 굿을 친 집에서는 저녁을 걸게 차려 치매들을 대접하였고, 식사가 끝나면 작은 밤굿과 가면놀이가 진행되었다.

매구굿이 끝나기 전날 밤에는 학교 운동장에서 횃불을 켜놓고 큰 밤굿을 열기도 하였다. 흥년이 들면 매구굿을 원하는 집이 많지 않아 공동 기금도 적었기 때문에 큰 밤굿이 생략되기도 하였다.

풍년이 들면 큰 밤굿이 열리고 그때는 가면을 쓰고 남자가 여장을 하거나 여자가 남장을 하는 가장 무도회가 열렸다. 고깔을 쓴 어린아이를 어깨 위에 태우고 무동(舞童)을 태우고 춤추는 사람, 꼬추춤이나 양반춤을 추는 사람 등 다양한 춤과 의상이 어우러졌다.

마을사람 모두가 참여하는 마당굿판으로서 여러 가지 장단의 풍물이 울렸다. 모두 가면을 썼기 때문에 춤 솜씨를 보아 누구일 것 같다는 추측만 해볼 뿐 누구인지 알 수가 없었다.

노인들은 가면을 쓰지 않고 춤을 추었으나, 젊은이들은 눈치껏 상대를 알아차리고 굿판에서 짝이 되어 놀이를 즐겼다. 동네 유지들이 술과 죽을 내놓아 신명나는 화합의 축제였다.

5) 정월보름 출어 고사와 용왕제

정월보름을 상원(上元)이라고 하고, 칠월 보름은 중원(中元), 시월 보름은 하원(下元)이라고 한다. 음력 1월 15일은 정월대보름이라고 하여 민속행사가 가장 많았던 명절이다.

음력 1월 14일은 ‘까치 보름날’이라 하여, 정월보름 행사는 이날부터 시작되었다. 손죽도에서는 이날 초저녁에 조상께 올리는 차례를 지냈으나, 쌀, 보리, 콩, 조, 수수의 오탁으로 지은 약식(藥食)을 올리는 것은 다음날인 정월 보름날 아침이었다.

14일 새벽 일찍 집과 중선배에 오색기를 달고 배에서 고사를 지낸 후, 길굿을 하는 것은 선달 그믐날과 같았다. 정월 보름날 아침에 오탁 약식과 여러 가지 나물 반찬을 만들어 먹었다.

편식을 막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합리적인 생활의 지혜로써, 소나 돼지 등의 가축에게도 찹쌀 오탁밥과 나물을 먹였으며, 까마귀 같은 날짐승들이 먹을 수 있도록 따로 놓아두었다.

그러나 개는 사람과 가까이 하면서 평소에 음식을 먹을 기회가 많았으므로 그날만은 개에게는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특히, 보름날 개를 잘 먹이면 그 해에 파리가 많이 들끓는다는 믿음 때문에 금식을 시켰다. 그래서 “개보름 새듯 한다.”라고 한다.

보름날 오전에는 집집마다 오탁밥을 얻어 먹거나 술을 담기도 하는 등 서로 주고받는 나눔의 날이었다. 여럿이 모여 오탁밥 얻기를 할 때는 각설이 타령 등으로 흥을 돋아 재미있는 굿거리가 되었다.

설이 지나고 고기잡이 배들의 출어는 정월 그믐사리에 했으므로, 정월보름을 새고 각 배별로 고기잡이 준비를 하여 항구를 떠나기 전에 풍어와 무사고를 비는 출어 고사 즉, 용왕제를 모셨다.

선주집에서 막걸리를 담아서 올리고 김치 등을 올려주면 선원들이 배 위에서 풍어를 기원하는 용왕제를 올리고 굿을 치며 출어했다.

손으로 들고 다닐 만한 크기의 마른 소나무 한 다발을 준비했다가 고사가 끝나고 바다로 나갈 때, 술 다발에 붙인 불을 휘몰아 배 위의 여러 곳에서 잡귀를 물리치고 바다에 던졌다. 소나무 불은 배가 멀리 떠난 뒤에도 바다 위를 떠다니는데, 헤어진 가족들의 마음을 더욱 허전하게 만들었다.

선주와 어부들은 대부분 개를 키우지 않았는데, 물에서 그물 등을 손질할 때 개가 그물을 넘나들면 재수가 없다는 믿음 때문이며, 여성들도 배에 오르는 것을 금했다.

어선이 향해나 작업 중에 바다에 떠다니는 시체를 발견하면 그냥 지나치지 않고 가까운 육지에다 묻어 주어야 하는 것이 뱃사람들의 도리였으며, 거북이가 그물에 걸려 잡히면 술과 밥을 먹인 뒤 다시 바다로 되돌려 보냈다.

6) 기독교

손죽교회

손죽도의 유일한 교회로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총회 소속이다. 1965년 4월 20일 정태현 전도사가 설립하였다. 삼산면 손죽리 산 1108번지에 15평 규모의 교회를 짓고 시작했으며, 1983년 현재 위치(손죽리 산 958번지)에 새로 교회를 신축하였다. 2004년 같은 자리에 증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23년 7월 현재 강길훈 목사가 시무 중이다.



손죽교회



손죽교회